WMU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323)466-4629, Fax. (323)466-7840

2001학년도 가을학기

월드미션대학교

유아교육학과 학생 모집

수업 일정

가. 요아교육원(preshool)교사 자격증 과정은 15학점(5과목), 원장 자격증은18학점(6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한 학기 수료과정임.

나. 2001년 가을학기: 2001년 8월 27일 -12월 14일

강의 시간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9:00 AM 11:00 AM	CD 104(필) 유아교육 교과과정 및 교습 the curriculum and insturction for Early childhood program 정지연 교수	CD 105(선) 유아건강, 안전, 영양 Health, safety, & Nuritiion for young children 변명혜 교수	CD 103(필) 유아창의력 개발 child Creative Experience 김유경 교수
	점심식사 11:00 - 11:30		
11:30 AM 1:30 PM	CD 106(필) 가정, 학교, 사회생활 Home, School &Community 정지연 교수	CD 110 Director(필) 유아교육 행정 Administration & Instruction for Early Childhood Programs 변명혜 교수	CD 101(필) 유아 성장과 발달 Early Childhood Growth & Development 안송주 교수

THE ORIENTAL MISSION CHURCH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World Mission University 1989

총장 임동선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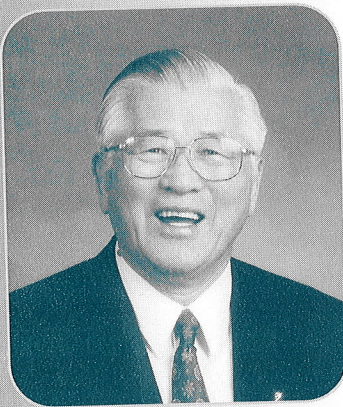
1. 지원 자격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신자이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자
2. 구비 서류	입학원서 1통 (본교 소정악식) 추천서 3매 사진 2매 및 최종학교졸업, 성적증명서 각 1통
3. 등록 일정	가. 원서접수 마감. 8월 17일 (금) 오후 7시 나. 전형. 서류심사 및 면접 일자는 개별적으로 통지함
원서 교부 및 접수	본교 사무실 (학교로 방문 전화, 팩스, E-mail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입학원서를 우송해 드립니다

목 차

교 • 수 • 논 • 단

학 • 생 • 논 • 단

발행인 : 임동선
편집인 : 남종성 • 편집위원 : 유동훈, 이신재
발행일 : 2001년 6월 12일

졸업생은 그 학교의 성적표

총장 임동선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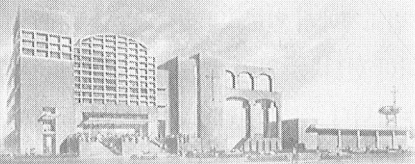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선각자이자 독립운동가인 안창호 선생님께서 1902년 24세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와서 거리를 지나가는데, 동족인 한국사람 두사람이 인삼장사를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유학하고자 했던 큰 꿈을 중지하고, 동포들을 교육해야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산호세를 비롯해서 샌프란시스코와 L.A.등에서 교포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시고 강조하시길,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려면 힘을 길러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지성의 힘을 길러야 경제력도 생기고 정치력도 생겨 독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철학을 가지고 평생을 교육에 헌신하였습니다.

안창호선생님의 교훈은 세계의 훌륭한 지도자들도 함께 가졌던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은 교육을 전제로 하고 태어났다"라고 했고, 불란서 문인 빅톨 유고는 "학교의 문을 여는 자는 감옥의 문을 닫는 자이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은 "나는 공부하고 준비하리라. 그러면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말을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그는 국민학교도 안나왔는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서 인류역사상 노예해방이라는 인도적인 정치가로서 빛나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케네디는 "국가발전은 교육발전을 앞서지 못한다"고 했고, 서독의 수상 브랜드는 "국가의 국력은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보다 교육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전쟁에서 패전을 하였지만 교육의 덕택으로 유럽에서는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패전한 나라지만 교육이 보편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일등국가가 되어 미국대통령이 일본에 머리를 숙이는 경지까지 도달한 것을 보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오늘날 우리의 신학교육에도 적용이 됩니다.

신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력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신학도에게 중요한 것은 건전하고 깊이있는 신학교육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 훈련과 연단없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진리의 파수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 2001년을 맞이하여 본교는 10번째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0년을 결산하면서 우리학교의 교육적 사명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흥망성쇄는 물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저희학교가 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면서,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성과 학문을 겸비한 새시대가 필요로 하는 능력있는 선교사, 충성스런 목회자, 그리고 영향력있는 평신도 지도자의 육성을 목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교육하여 왔습니다. 우수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훌륭한 교수진들이 열정을 다하여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로, 혹은 물질로 학생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우리학교가 신학교육과 세계선교에 힘써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의 진정한 평가는 학교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해주어야 공정한 평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학교를 졸업하고 나간 졸업생들의 활동상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제 10 회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받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에 보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학교를 평가해 주는 우리학교 교육의 성적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학교에서 신학과 선교와 목회에 대한 훈련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깊이있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세계교회와 선교를 짊어지고 갈 위대한 용사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평가가 우리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학교가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훌륭한 학교라는 평가보고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학교의 장래는 여러분들의 두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좋은 점수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졸업을 축하드리고 앞날에 건승을 기도합니다.

목사가 가는 길에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길에 나라가 간다

이사장 이기홍 목사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월드미션대학교 제 10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축하드리오며 함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대학이 있으며 그 모든 대학에서 학위를 받게 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상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헌신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학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며 이에 다음 다섯가지 면에서 중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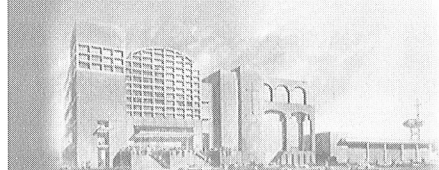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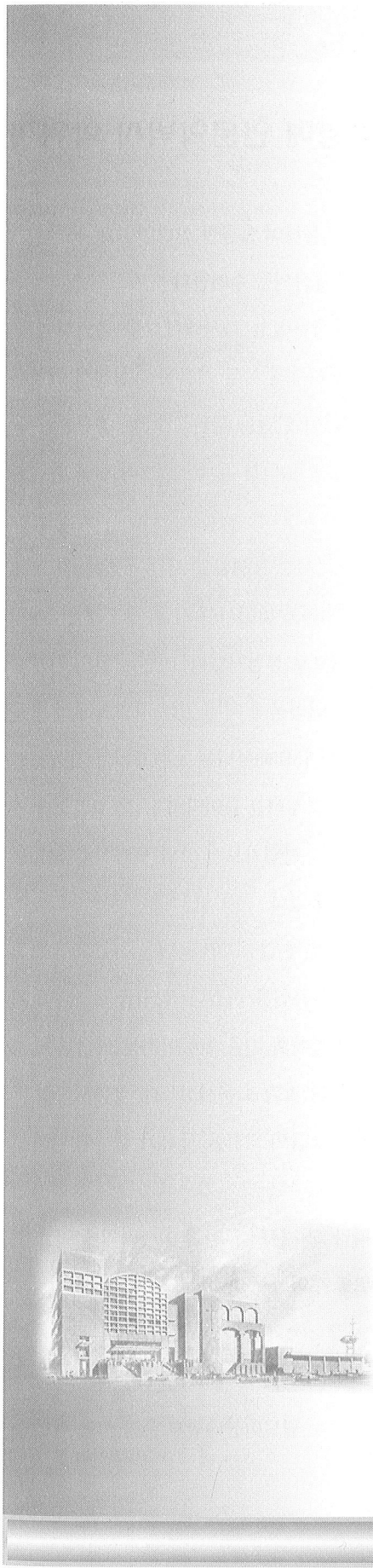
첫째, 모든 어려움을 참으며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한가지 목적을 위하여 여러해 동안 학업에 매진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가정을 이룬 분도 있으며 낮에 직장에 나가며 저녁에 공부하며 기도하며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만학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학비에 어려움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있는 분들의 협력을 받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모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의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사도바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 목회자 전도자(선교사) 교회지도자를 양성하는 월드미션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기독교 복음주의와 웨슬리안 신학을 중심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또한 이 대학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선지학원입니다. 이 사역자들을 배출하여 국내외 선교와 교회 목회에 힘씀으로 하나님나라 확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일하려면 판검사, 변호사가 되어야 하고, 의료계에서 일하려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려면 목사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직책이 명예로운 것보다도 그 직책으로 사역을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대학에서 졸업하여 학위를 받아 목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얻게 된 것을 축하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전도자의 직무를 갖게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현실사회에서는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료진도 필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 교육의 목적도 인격교육과 지식

교육인데 지식 교육은 일반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인격교육은 신앙과 관계되기 때문에 교회교육과 가정교육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은 좋은 사람과 지식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인격교육입니다. 현실사회에 지식인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새 마음을 가진 인격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도자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행복이 없고 불행이 계속되는 것은 인격적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행과 죄의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필요하여 이 일에 보람을 가지고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경을 계속 연구하게 된 것을 축하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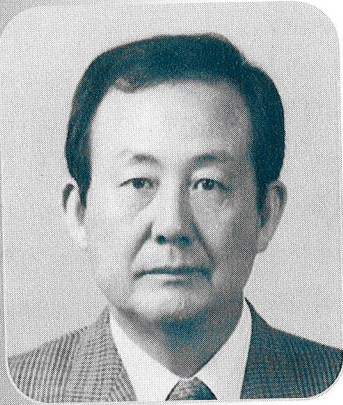
"졸업에 단어의 뜻은 새로운 시작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위를 받음으로 학업을 마친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학문의 세계는 평생 다하여도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전하는 전도자가 되려면 계속 신학과 성경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목회 성공비결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스러운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내용이 있으며 뜨거운 설교"가 있을 때 성도들이 모이게 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역자들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경은 물론 일반 좋은 서적을 일주일에 한권, 일년에 52권정도 읽어야 하고, 평신도는 1개월에 한권, 일년에 12권을 읽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욱 연구하셔서 실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교회로 이끌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게 된 것을 중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목회자는 훌륭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의 인격적인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훈 중에 사랑, 겸손, 희생등 여러 교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의 자세"입니다. 섬김의 최고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김의 정신으로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별세신학"의 의미도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 15:31)는 사도바울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이웃을 위하여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사역할 때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속담에 "목사가 가는 길에 교회가 가고 교회가 가는 길에 나라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역자들(목사)이 바르고 진실한 삶을 가지고 목회 한다면 교회는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사회를 변화시켜 나라를 발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학위를 받으시고 국내외 사역지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영적 싸움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에서 세계에 나가 있는 8,000여명의 선교사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는데 그들의 표어는 "굶으면 금식, 죽으면 순교"라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복음이 이 땅위에 전파될 것입니다.

손석효 회장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기

손석효 회장

본 대학교 제 10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훌륭한 신앙인이요, 모범적인 사업가이신 손석효 회장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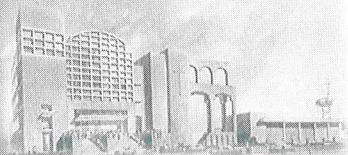
손석효 회장은 충남 천안에서 출생하였고 경희대학교를 졸업하였다. 1954년 공군에 입대하여 1959년에 제대하였다. 군 복무 기간동안 실천적 신앙생활과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군본부 군종감실에서 근무하면서 다년간 군인정신 강화, 도덕적 재 무장, 그리고 군 복음화에 적극 헌신 노력하였다.

군 제대후에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 사회생활을 시작 하였다. 1979년 4월에 주식회사 아가방을 설립하여 창업 22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한국에 800개의 점포와 미국에 지사를 두는등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런 사업의 번창과 더불어 손석효 회장은 사회의 그늘진곳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아 왔다. 특히 지난 IMF때부터는 소년소녀가 가장으로 있는 50가정을 매달 지원하고 있으며 2001년도 부터는 총이익의 3%을 소년소녀 가장과 그들의 가정을 돕는데 쓰기로 결정하였다. 사업가로서 그의 모범적인 활동은 우리 사회에 잔잔하면서도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손석효 회장은 동양선교교회 본당구입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고 특별히 본교의 이사로 봉직하면서 신학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장학금을 기부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신학생들을 양성하였고, 자동차를 기증하여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도 하였다. 특별히 수많은 성경을 보급하여 말씀과 문서선교에 앞장서고있다. 오늘도 성실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고 있다.

본교는 박사학위 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손석효 회장에게 명예 인문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2001년 6월 3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황재길 장로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기

황재길 장로

본 대학교 제 10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훌륭한 신앙인이요, 모범적 사회사업가이신 황재길 장로에게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황재길 장로는 1944년 2월 12일에 태어나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1980년에는 하섬섬유를 설립하여 1990년까지 운영하면서 사업가로서의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는 서울 한양제일 장로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었고, 모범적인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청년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되, 특별히 소년원 출소자들을 위해 사역을 하였다. 청년교육에 더 깊은 참여를 위해 해외이주 사업에 지원을 하여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다.

1991년에는 남 아프리카에 Young Pioneer 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1994년에는 모잠비크에 Topa International이라는 공장을 설립하여 현지인들을 크게 도와오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그는 남 아프리카에서 사업가로서의 큰 명성을 얻고있으며,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의 친구로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아공에 이주한 북한 벌목공들이 잘 정착하도록 헌신적 노력과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그의 공적은 KBS-TV 통해 한국과 미국 한인 사회에널리 소개 되었다.

신앙적으로도 요하네스버그 한인장로교회 장로로 시무하면서 교포들의 신앙생활에 큰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교회건축에도 큰 공헌을 하여 남아프리카 한인교회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는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그 지역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며, 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구약 시대의 요셉과 같이 그 곳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본교의 이사로 봉직하면서 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하였다.

본교는 박사학위 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황재길 장로에게 명예 인문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주후 2001년 6월 3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The Proclamation of the Kingdom

Dr. John McKenna (본교 부총장)

World Mission is bound up with the Church' s Proclamation of the Kingdom of God. The Kingdom of God belongs to the reign of the God's King, the King of the People of God, the person of our Lord Jesus Christ. In a time when the world enjoys a very popular belief in a free and democratic global village empowered by modern technology, it is not easy to sing the praises of this King or His Kingdom. Our epoch of time has seen the demise of kings and their kingdoms. The divine right of the kings of the past, riddled with one abuse of power and authority after another, has been denied to any royal personage today. To be sent into the world to announce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King of Israel and the Universe is not a popular mission by any stretch of the human imagination. Yet this is precisely what the Church has been commanded to do in this world. The authority may not be popular but it is real. The power may not be of this world but it is certain. In this essay,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King with His Kingdom that the Church, being sent into the world, is to proclaim.

The Kingdom of God has its roots in the Monarchy of Ancient Israel as the People of God. The Bible teaches us that this People belong to the Promise God made Israels ancestor Abraham. Even though this People are bent in their history to oppose the God of this Promise, God was and is and will be faithful to it. He will be faithful to His Covenant Land. He will be faithful to His Covenant Seed. He will be faithful to His Covenant Blessing. We are taught that the Exodus from Egypt on the part of the People of God is an epoch making event in Israels history with her God. The Lord redeems her from Pharaoh because He is faithful to His Promise to her fathers, Abraham, Isaac, and Jacob, in spite of their faithlessness.

This People, this Israel, is taken from Egypt across the Wilderness of Sinai to the Land of the Promise as no other people in the history of the world have been taken from one place to another. God

comes in a burning bush to speak with Moses and because of this speaking the name of the Lord is given Israel along with her Torah, Tabernacle, and life of worship and service to her Redeemer. In this service, the People are to witness to the world that the One who redeemed her from Egypt is none other than the Creator of the world, from whom the world had turned to worship the idols of its own making. But precisely in this service, Israel again and again acts along with the idol-worshippers of the world against her Redeemer and the Creator of the world,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covenant with her. Israel, this People, is characterized throughout the history of her covenant with her Lord and God as a stiff-necked, high-handed, murmuring, and self-centered people, always with the experience of a great evil anxiety in disobedience against the God and Lord of her covenant relationship with the Great I-AM of her destiny. It is in the midst of the evil anxiety that comes from doing what is right in her own eyes, rather than being commanded by and doing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God, that the notion of the Kingdom of God is born.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 Monarchy of Israel, conceived against the will of the Lord and the prophet-judge Samuel, raised up by God for this time, is possible because God is free with Himself in His covenant with His People. In spite of their insistence that a king will resolve their problems in the world, the Lord agrees to give Israel the king for which she longs. He will keep His Promise in any case. He will accommodate His Will to theirs and still be faithful to Himself and His Promise in the covenant with Abraham and Israel. Because He is thusly free to be with His People, the Lord God raises up the House of David and to King David makes a promise that is His keeping of His Covenant Promise. In 2 Samuel 7, the heart of the faithfulness of the Lord God to Israel through the King may be read. The important dimensions of the renewal of the covenant promise here are: 1) The King of Israel will be as a son is to a father with the Lord God. 2) Even though He may punish the King and Israel for their covenant faithlessness, He will never remove from the House of David His Covenant Loyalty (or grace). Thus, in this way the Lord God will keep His Promise to His People.

The relationship of Israel to God as son to his father is vit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ophetic tradition in Israel and the vision the prophets employ in order to create with the People of God the Messianic Hope which marks so singularly the gift of the covenant history between the Great I-AM the Lord God and Israel as His People among the nations of the world. Hosea understand the fatherson relation as that through which God will restore the fortunes of Israel punished for her sins against Him. It is with this relationship that the prophet can tell of the latter days when unforgettably the Lord give Israel to know Him for who He truly is with her and will fulfill her destiny with Himself in the world (Hosea 14). Isaiahs vision sees this King as the obedient servant who will do all that Israel failed to do in her history with God and who will

deliver her from her sins against the Lord and establish His Kingdom among the nations. At the heart of this development I set always the fact that God will be as father to the King of Israel. Israels king will be as His son. The Lord has vowed to keep His Promise with His loval love or grace to His Peopl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kings of Israel will do what i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God will keep the promise He made to Abraham to the Israel of the latter days in the messianic vision of Israels prophetic tradition.

Thus, the Church was instituted and constituted to go out into all the world and proclaim the Kingdom of God everywhere, to every creature under the sun.It is within the context of this loyalty that we may understand the Incarnation of the Word of God recorded for us in the New Covenant. The Lord is Jesus Christ and Jesus Christ as the Lord is the King of Israel raised up to proclaim to Israel and the world the Kingdom of God. The New Testament does not record for the history of the People of God anything other than the same opposition they have always held against their Redeemer and Creator. The Great I-AM of the Burning Bush is mightily opposed by the People of God. The Great I-AM of the Incarnation is still mightily opposed by the People of God. Whether by thunder and fire He speaks or by flesh and blood that is their own He speaks, Israel prefers to listen to another than who He is. They continue to desire the turn the Great I-AM the Lord God is in covenant with them into the Great Not-I-AM (Hosea 1: 9) and to make idols with their own hands after their own imaginations and to take His Name and marry it to another who is not God. It is against this opposition that we may see Christ on His Cross dying for His People and with His People for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It is upon the Cross that God bears as a man the sin of the world against Him. It is upon the Cross that we may see and hear the Lord God speaking of the great loyal love and grace He is with the House of David, with the King of the Jews. For a few days, it seemed the cross meant the world was a place of hopelessness indeed. But after a little while, raised from the dead, Christs resurrection meant that God had kept His Promise to Israels King and to the House of David. Thus, He lived. The King lived and lives. He reigns as King over His Kingdom. The Church was then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in order to proclaim this message to the entire world. Jesus, the Son of the Father, lives. He reigns as the House of David, King of Israel and Son of God over all the peoples of the world. The Word Of His reign must be taken to every tribe and nation in the world.

The thing we need to grasp in this command is the freedom with which the Lord God has provided for the Church the eyes to see and the ears to hear in the person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One who keeps the promise of the One who He truly is with His People in the world, the One One who as Father, Son, and Holy Spirit will keep His promise to His People in the world.

전도의 두가지 성서적 모델

Dr. Ralph Martin

* 이글은 2001년 3월 28일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Dr. Ralph Martin 교수를 초청하여 개최한 개교 12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오늘 월드미션대학교 개교 12주년을 맞이하여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학교의 교직원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교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게 감사와 더불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것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전도의 두 가지 성서적 모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고 하나는 그를 따랐던 사도바울의 모델입니다. 전자는 누가복음 4:14-30의 말씀을 근거로, 후자는 빌립보서 1:12-30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창시한 전도의 모범은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I. 누가복음 4:14-30

본문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취임설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임의 중심지인 회당을 방문하셔서 설교하실때,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사역에 대한 프로그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때 청중들의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전후관계와 결과를 살피면서, 이 사건이 전도에 대한 어떤 원리들을 제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중에 특별히 4:18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He has sent me to proclaim good news)라는 구절은 오늘 말씀의 중심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합당하게 복음전파의 사역을 완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전파 즉 전도에 대한 소중한 원리와 모델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전도는 예배에서 비롯됩니다 (Evangelism arose derectly out of worship; 4:16).

누가복음 4:16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나신 마을에서 정규적으로 예배처소에 가셔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습관화 되셨고 그의 삶에 있어 하나의 패턴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0:25에 나오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대조가 되는 '습관' 인것입니다. 예배를 정규적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드리는 습관은 아주 중요하며, 이것이 전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2. 전도는 예수님이 무대의 중심에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Evangelism places Jesus at center stage; 4:20).

누가복음 4:20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The eyes of everyone in the synagogue were fastened on him)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계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인것입니다. 마태복음 18:20에 "두 세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곳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중심에 있다는 말씀이며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소개해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Evangelism is shaped by God' s will discovered in God' s word; 4:21).

누가복음 4:21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사건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이사야 61장1,2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오늘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이것을 설교하는 것은 전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경말씀을 읽으시고 이에 대해서 설교하심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해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히 살피고 이 말씀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현재의 안목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자신의 시대에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안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전도는 말씀의 내용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대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시대는 물론 오늘 우리의 시대에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이 이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에 있어 성경자체의 말씀(scripture)과 그것의 해석된 말씀 (sermon)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4. 전도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Evangelism is defined by Jesus' self-understanding; 4:24-27).

예수님은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 자신을 이해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분입니다 [Jesus understood himself as servant of the Lord and outreached to those in greatest need (no 'holy land' exclusivism; no 'beyond the pale metality)]. 예수께서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설교를 하실 때 구약에서 두가지 예화를 드셨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이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반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오직 시돈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과부에 찾아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시돈땅은 엘리야의 원수인 이세벨의 영토입니다. 즉 엘리야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원수의 땅도 마다하지 않고 이방인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엘리사도 수리아 사람인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나아만 역시 이방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도 문둥병에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국경과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엘리사가 이사람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두가지의 구약의 예화를 통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왜 이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입니다.

전도는 바로 예수님의 정신과 사상을 따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자신을 이해하셨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를 함에 있어서 배타성이나 선민의식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땅과 거룩한 민족의 개념을 가지고 전도를 대단히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고 예수님은 종으로서 그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 가져할 가장 절실한 마음인 것 입니다.

5. 전도는 결단의 반응을 초래합니다 (Evangelism entails a decisive response).

본문의 말씀에 보면 2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환영을 하는 분위기 였음에도 불구하고 28-30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갑작스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결단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던지 아니면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간은 있을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 들이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청산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모실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결단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분명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라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수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아니오'로 반응하는 무리들에게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가지 어려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전도가 될 때는 듣는 사람이 양단간의 결단을 하도록 도전을 줍니다.

디모데 후서 4:5은 우리 전도인들이 마음에 담아야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II. 빌립보서 1:12-30

빌립보서 1:12-30의 말씀은 예수님의 전도모범을 따라 사도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실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 사도인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자신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본문 말씀중에 특별히 1:27에 있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도생활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복음"이는 단어가 6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말은 바울이 생각하는 전도의 개념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 전도는 복음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vangelism is possible only by maintaining the faith of the Gospel; 1:27).

바울은 운동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자신의 독자들이 복음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있어 운동선수들처럼 항상 깨어있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실감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7b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는 말속에는 운동선수들처럼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이 내포되어있습니다. 복음의 신앙란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a Christ-centered faith)을 의미하는데 이것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빌립보서 2:6-11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성육신 하신 인격적인 그리스도 (Christ in his person as incarnate son), 둘째는 인류를 구속하시는 열정적인 그리스도 (Christ in his passion as human redeemer), 셋째는 우주적인 주로서 전능하신 그리스도(Christ in his preeminence as cosmic Lord), 이렇게 그리스도를 세가지 측면에서 온전히 받아 들이는 신앙을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이 견고히 서고 유지될 때만이 전도가 가능한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기초없이 일하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전도의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위해서는 운동선수와 같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삶의 경계태세를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하고도 단호하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전도는 복음의 진보를 통해서 가름되어 질 수 있습니다(Evangelism is self-defined as the advancement of the Gospel; 1:12).

빌립보서 1:12에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

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여행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진보'(advancement)라는 말은 앞길에 어떤 어려움과 장해물이 있어도 전진해 간다는 여행용어 인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사역은 감옥과 쇠사슬이라는 말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의 선교의 여정속에는 숫한 어려움과 방해와 장해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사역과 복음전파에는 진보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장해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사형수의 몸이었지만 그는 기쁨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옥중서신에서 그는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장해물도 크고 어려웠지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의 진보가 오히려 큰 것을 볼 때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죽더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이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여행자가 여행을 할 때와같이 전도자가 전도를 할 때는 분명히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장해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사역의 평가는 그가 당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복음전파에 진보가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어려움이 있다고 도중하차해 버리면 여행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전도자도 역시 복음전파의 진보가 없다면 전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복음전도자에게 있어 유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통해 복음이 더욱 크게 확장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오히려 복음이 더욱 많이 전파될수 있었던 것처럼, 전도자에게 있어 장애물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3. 전도는 복음안에 있는 사람들의 협력에 의해 더욱 강화 될 수있습니다 (Evangelism is enhanced by the partnership of those engaged in it; 1:5).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기도와 사랑과 삶의 방식과 재정적인 후원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사이에는 함께 일하는 선교의 파트너쉽 (partnership-in-mission)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코이노니아(Koinonia)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결코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했습니다. 윌리암 바클레이에 의하면 바울이 그의 편지들속에서 문안을 하기위해서 이름을 밝히며 나열한 사람이 ???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들인것입니다. 바울의 그의 선교에서 승리할수있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동역하는 파트너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전도에 있어 바울의 모범은 현재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협력하지 않고 선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함께 해야만 큰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참다운 교제와 사랑이 있고, 그들 사이의 관계가 살아있어 생명력있는 관계가 될 때, 전도는 더욱 큰 위력을 발휘할수 있고, 교회는 더욱 더 강력한 증언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해지던 한 슬로건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나같은 사람으로만 모두 구성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If every church member were just like me, what sort of a church would my church be?).

예수님이 주신 전도의 모델과 바울이 행한 전도의 실천을 교훈삼아 전도의 삶에 큰 결실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 및 요약: 남종성 목사

주께로 부터 받은 사명을 이루는 길

(딤후 4:7-8, 고전 9:24)

김진광 교수
(본교 성경신학교수)

실존주의 철학자 죄렌 키에르케고르는(Soren Kierkegaard: 1813-1855, 루터교 신자인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Copenhagen 에서 태어남) 22세의 대학시절에 그의 일기문에 이런 고백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고 놓을 수 없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를 나는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나의 진리요 주체적 진리요 실존적 진리이다."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고 물으신다면 마음에서 들려오는 스스로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 왔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위하여" 살아야 할 대상이 있고, "때문에" 살아야 할 목표가 있어야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인생의 높은 목표나 이상이나 가치를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최대의 과제는 사는 일이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아는 일입니다. 사명이란 심부름 받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과 사명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생의 사는 목적과 의미, 그리고 삶의 자세를 진지하게 가르쳐 준 분이 있다면 사도 바울 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신학자요, 영광스러운 순교자 였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삶을 경주에 비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달린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0:24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 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고 디모데후서 4:7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경주를 끝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마칠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마라톤 경기를 보면 출발점에는 수많은 선수들이 모여서 출발하지만 도중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 결승점에 가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주를 끝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경주도 그와 같음을 봅니다. 삶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끝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 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잘 마치려면 잘 견디어야 합니다. 자신의 사명감당의 목적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어려운 일들을 견디어

이기고 하나님께서 평생 사명을 끝낼 힘을 주실 것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할 때에 평생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내가 세운 평생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과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을 끝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어려운 일들을 잘 견디며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24에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받은 사명을 완수하며, 어떻게 이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달리는 비결, 즉 우리 모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섯 가지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1.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2:1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각자가 달려야 할 경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나를 위해 달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만이 달려야 할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달리지 아니하면 끝내지 못하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에서 끝까지 잘 달리려면 달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합니다.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리려면 우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거나 뒤쳐지게 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갑옷이나 정장을 하고 마라톤을 달리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서 가능한 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우리주변에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속에 늘 가지고 다니는 죄의식을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못하므로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실수들이 항상 내 머리를 괴롭힙니다.

빌리보서 3:13-14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도 평생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려면 과거를 잊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노예가 되지 말고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의 슬픔도, 불평과 원망도 없어져야 합니다. 과거에 잘하고 실수한 것도, 내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너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사 43:18)".

2. 나의 사명과 상급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왜 목표를 향해 달립니까? 왜 내가 평생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씁니까? 내가 왜 목표를 향해 달리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다면 결승점까지 달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고후 4:1)." 왜 그 사명을 올바르게 끝내려고 힘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할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평생 사명을 감당하려고 달리는 이유는 그 사명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세

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어느 피조물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명예와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알려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하라고 의도하신 그 사명을 끝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내 삶의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명 감당입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는 다른 요소가 바로 상급입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 9:24)." 희생이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희생하도록 합니까?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내가 나의 사명을 감당한 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삶에 이루어 놓은 것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적인 동기', 이것은 자신이 자기를 움직이게 합니다. 둘째는 '외적인 동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셋째는 '영원한 동기', 이것은 가장 큰 동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을 위해서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3.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랫동안 견딜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재충전 되어야 함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 4:16)"고 했습니다. 사명 감당의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해 주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를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들을 알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들이 필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주는 것들을 통해 새로워짐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시 94:19)"라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내 사명을 마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게 의심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 새로운 소망을 달라고 간구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과거에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둘째, 현재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셋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미래에도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 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20)" 이와 같은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에 소망이 새로워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4. 실망을 물리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6: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했습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낙심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적입니다. 낙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제일 좋아하는 수단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효과적이 되지 못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동안에 사탄은 내 마음에 들어

와 낙심시키려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나의 적이 되고 내 삶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도 우릴 실망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망을 극복하게 될 때에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견딤이 없이는 가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Auther Wellesley Wellington (1769-1852: Waterloo에서 Napoleon I세를 격파한 영국의 장군, 정치가)은 영국 군대가 워터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적군보다 5분 더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이란 보통 사람들이, 보통보다는 뛰어난 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계속 목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끈기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시작하신 것을 끝내십니까? 그러면 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다루십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간구하며 앞으로 나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그의 삶의 성공의 비결중의 하나가 끈기였습니다. 그는 "나는 멈출 수가 없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는 겁을 내거나 중도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힘있게 말합니다.

Sir. Winston Churchill (1874-1965: 영국의 정치가, 저술가, 수상)은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2차 대전을 영국의 승리로 이끈 영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히10: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했습니다. "인내"와 "행한 후에"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5.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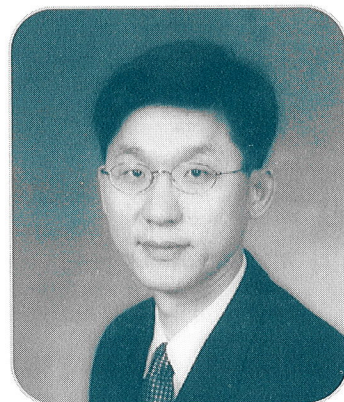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맡기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골1:29절에서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 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나의 꿈이 내게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어떻게 압니까? 비젼이, 계획이,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확인하는 한가지 비결은 그것들이 너무 커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을 주실 때는 그것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벧전 4:11)."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헌신한다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연히 오늘의 내가 있게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나를 훈련 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서 부르신 확실한 소명감속에 받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선교에 복음의 파수군들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중된 삶과 개인 미션 진술서

신선묵 교수
(본교 리더쉽교수 및 사무처장)

서론과 전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그들의 삶을 한가지 중요한 일에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자의 조언 중 하나에 (우리의 속담을 인용하면) "한 우물을 파라"는 조언이 포함되어져 있다. 이는 아마도 기독교 지도자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많은 성공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에 이 말이 포함되어져있고 실제 그들의 삶과 사역이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이 말은 중간 레벨의 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조언 중에 하나이다. 적절한 지식과 경험으로 많은 사역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주어진 시간과 은사를 무분별하고 사용하여 집중되지 못한 삶과 사역을 가져올 수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사역 자로써 어떤 일에 어떻게 집중할 것이며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어떻게 연관되어질 수가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겪고 또 목도하는 오류 중에 하나는 유행을 타는 것이다. 이곳 저곳 유명하다는 것과 곳을 들락거리며 남의 것을 따라가다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삶과 정력을 쏟아 부을 것인가? Fuller Theological Seminary의 지도자학 교수 Robert Clinton은 이런 관심에서 출발하여 많은 집중된 삶을 산 지도자들의 삶을 연구하여 하나의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의 책 Focused Life - 8 Highly Effective Leaders(1995)와 Strategic Concepts(1995)는 이런 이슈를 정리한 책들이다. 이 개념의 궁극적인 관심은 기독 지도자들로 하여금 집중된 삶을 살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된 삶을 논할 때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도자 한 사람 한사람을 향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차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에 맞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다.

>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엡 2:10)

이 믿음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종류의 사람 또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전 삶을 집중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우물을 파는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성공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향한 선한 뜻에 부합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그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면서 그것에 집중하여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은 기나긴 여정이다. 이 글을 통하여 우리들의 선배들의 삶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일들을 해 나아갈도록 돕기 위한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집중된 삶"이란?

우리가 이 글에서 목적하는 삶은 한 마디로 말하면 "집중된 삶"이다. 그러나 그 삶은 단순히 한 우물을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해 나아가는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더 구체적인 개념정의가 필요한데 많은 지도자들의 삶을 비교 분석하여 만든 집중된 삶(Focused Life)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집중된 삶이란;

-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된 삶으로써
- 집중 요소들을 발견하는데 즉, 삶의 목적, 독특한 방법론, 중요 역할, 그리고 궁극적인 유산 등이다.
- 삶의 활동들을 이 중요 요소들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움직이고,
- 궁극적으로 존재와 성취의 균형 잡힌 삶의 만족으로 이끌어진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간 삶, 그들이 의식하였건 아니면 열심히 산 결과로 나온 삶이건 그들이 살아간 삶, 우리가 모방하고 싶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삶 그것은 바로 이런 집중된 삶이다.

첫째, 온전히 "헌신된 삶"이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사는 것이다. "집중된 삶"을 사는데 있어서 기본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항복의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이익, 우리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다. "집중된 삶"을 산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이런 온전한 헌신이 있다. 사람마다 다른 종류의 경험과 과정을 통하여 이런 헌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법이나 과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는 것이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다. 이 위에서 집중된 삶, 모든 삶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한 예를 들어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경직 목사님의 삶을 보면, 그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 식민지의 상태에 있었던 조국을 위하여 일할 것을 도전 받고 결단한다. 특히 그가 숭실대학교를 다니면서 바닷가를 거닐다가 조국을 위하여 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학을 공부하여 조국을 위하여 복음으로 봉사할 것을 결심하고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한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목회학 과정을 마치고 예일 대학교에 가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는 당시로는 치명적이었던 폐병의 진단을 받고 죽음을 앞에 두고 병상에서 3년 동안 홀로 외로운 투병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욕심과 허영이 온전히 무너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다. 그의 이러한 결단을 그의 기도에서 잘 나타나있다. "고국에서 삼 년만 일하다 죽어도..."라고 소망하는 데서 볼 수가 있다.

"처음 발병했을 때는 아득했지요. 17년간이나 공부해서 아무 것도 못하다가 이렇게 죽으면 많은 은인한테 보답도 못하고 이거 죄 아닌가 생각하니 며칠동안 캄캄했지요.... 하나는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은 했지만 그때까지도 내 속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야심이 많았단 말이야요. 훌륭한 사람이 된다든지 - 그래도 그게 죄 되는 줄 모르고 있었댔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생각나서 죄를 자복하게 되고 전보다는 좀 깨끗한 심령이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닿게 되었고 감사하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자 이제는 내가 어떠한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는 꿈이 확실하게 됐지요. 처음에 예일대학에 가서 철학박사 학위를 꼭 받겠다는 생각도 다 포기하고 무슨 결심을 했는고 하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이제 공부는 그만하겠다. 공부한 그것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정성껏 봉사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결심했지요" (김병희 1982: 32-33).

물론 모든 지도자가 이런 동일한 경험을 할 수도 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있어야 한다.

둘째, 삶에서의 "중요 이슈"들을 인식한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 하나를 위한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서 집중하는데 있어서 생각해야할 이슈들이 있다.

우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지도자 한사람 한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구체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에서 최초로 신구약 성경전체에 걸쳐서 주석을 완성하셨던 박윤선 박사님의 경우는 아마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셨을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하고, 가르치고, 말씀 중심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다." 또 조 용기 목사님과 함께 순복음 교회를 개척하고 순복음 기도원을 세운 최자실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죄와 저주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생명과 축복의 복음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또 동양선교교회와 월드미션대학교를 세우신 임 동선 목사님의 경우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지역교회를 충실하게 섬기되 선교 중심적인 사역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교두보로써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겠다." 이런 삶의 목적이 물론 자기의 인간적인 비젼이나 욕심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구체적인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삶의 목적이 구체적이고 분명해야한다.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일을 위하여 집중하여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가?

다음은 이런 삶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독특한 사역의 방식"이 있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여서는 사역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찰력, 가치관 혹은 기술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한 지도자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 이런 "독특한 사역의 방식"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자는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기도하고 또 어떤 지도자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도하고 또 어떤 이는 "기도원과 금식기도"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대중을 대상으로 연설을 통하여 선한 도전을 주는데 특유의 기술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독특한 사역의 방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습득하는 방법과 기술들 그리고 통찰력들을 정리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또 남에게 가르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좋은 효과적인 방법을 습득하였을 때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사용하고 수정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끔은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역의 효과적인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리하여 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하나님의 주신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주된 역할"을 찾아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삶의 목적)" "어떻게 할 것인가? (독특한 사역의 방법)"가 결정되면 우리는 "무엇이 될 것인가? (주된 역활)"를 생각해야한다. "주된 역할"이란 삶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에 부합하는 역할이 주어져야한다는 것이다. 어떤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좋은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에 부응하는 역할이 주어져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역할에 집중하여야한다. 우리가 집중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역할 저 역활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잘 맞는 역할을 찾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주된 역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역할"은 어떤 "지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위" 이상을 의미한다.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역할"의 중요한 핵심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동등한 것은 아니다. "역할"은 지위보다는 지도자가 감당해야하는 "기능"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야한다. 이 역할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바로 이해해야한다. 자신의 은사를 잘 이해하고 그 은사에 맞는 역할을 할 때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자신에게 맡는 역할을 찾는데 어떤 이는 "지역교회 목사"로 어떤 이는 "교육가"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교단과 같은 단체의 행정가"로 또 어떤 이는

“평신도 지도자”로 우리에게는 수많은 종류의 역할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에 적합한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적절한 자료를 통하여 자신의 은사를 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궁극적인 유산”을 생각하고 집중한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소명이자 부담감이라면 삶의 유산은 사역의 결과로 남기는 것이다. 우리의 삶과 사역이 허공을 치는 권투선수가 아니라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과 마지막 남길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궁극적인 유산이란 지속적으로 남아 그것으로 인하여 한 지도자가 기억되고 기독교의 발전에 공헌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이는 성자로써의 “모범적인 삶”을 남긴다. 어떤 이는 “모범적인 목회자 상”을 남긴다. 또 어떤 이는 “많은 기독교 지도자”에게 개인적으로 영향을 주고 양성한다. 또 어떤 이는 대중집회를 통하여 가능한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수를 많이 남긴다. 또 어떤 이는 “영감 있는 예술작품”을 남긴다. 또 어떤 이는 교회나 교단과 같은 것을 창설하여 조직체를 남긴다. 소위 말하여 “창립자”이다. 또 어떤 이는 연구하여 신학적인 개념이나 많은 사역에 도움이 되는 “학문적인 개념”을 남긴다. 또 어떤 이는 저술활동을 통하여 많은 책을 남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을 동등하게 남기고 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삶의 목적은 사역의 초반기에 많이 생각하게 되고 독특한 사역의 방법이나 중요 역할은 중반기에 생각하고 집중한다면 삶의 궁극적인 유산은 삶의 후반기에 많은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집중하게 된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저 마음과 기분에 따라 이것 저것을 다 남기려고 하다가는 아무 것도 남기지 못할 수가 있다.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힘과 시간을 정열적으로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야 한다. 사역의 초기에 있는 지도자들도 이 궁극적인 유산에 대하여 잠정적이나마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요소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한다.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대로 또 부르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 나가되 집중해야한다.

셋째, 이런 중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움직여야 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순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물론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것 중에서 우리의 선택권 밖의 것도 많이 있고 그 일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지만 동시에 많은 일들이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고 진행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 역할, 기술 그리고 유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 사실상 우리가 삶에서 닥치는 많은 선택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보다는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나 삶의 여러 중요한 이슈들에 대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이해하고 있다면 보다 유익하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있다.

인생과 사역에 있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볼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반사 반응(Reactive)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간다. 나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으니까 나는 그에 대한 반응으로 움직여야한다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는 집중적인 삶과 사역을 할 수가 없다. 다른 방식은 나에게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그저 반사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여건을 주도적(Proactive)으로 만들어 가는 식의 삶이다.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주도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생에서 주도적인 태도는 중요하고 많은 것이 우리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가 있다. 마치 앞의 것은 병이 걸리고 치료하는 약을 찾는 것이라면 뒤의 경우는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하고 운동하는 것과 같은 태도이다. 이런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태도가 우리 삶에서 필요하다. 삶과 사역에 대하여 나에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하여 순간 순간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철학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이다. 집중적인 삶을 위해서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넷째, 그리하여 "만족스런 삶"을 이끌어 내는데 여기에서 만족스런 삶은 그의 내적인 사람됨과 외적인 성취, 둘을 모두 포함한다.

이런 집중된 삶의 결과로 참 만족의 삶을 살게 된다. 일생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헌신한 뒤에 오는 것은 깊은 만족과 기쁨이다. 참된 만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외적인 성취에서 오는 만족이다. 어떤 일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뜻을 추구하여 많은 성취를 이루고 그에서 오는 만족이다. 성공적인 삶인 것이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외적인 성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참 집중된 삶은 외적인 성취의 만족뿐만 아니라 내적인 사람됨(Being)에서 오는 만족이다. 하나님의 도구가 됐다는 사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 삶에서 온 결과로 갖는 평안과 기쁨,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가 가져다준 기쁨,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참된 만족은 이 둘, 외적인 성취와 내적인 성숙의 조합인 것이다. 많은 집중된 삶을 산 지도자들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것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다. 나는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라는 고백은 정말로 아름다운 결말인 것이다. 우리는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이런 종결을 맞는 사람을 "잘 마친 지도자"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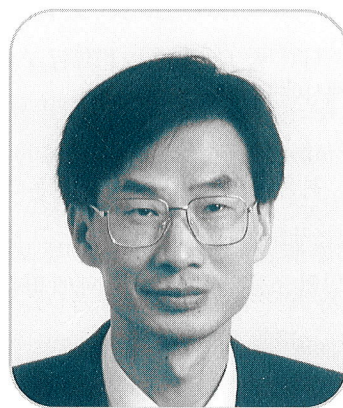
삶의 미션 진술서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집중된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다. 우리가 집중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자신의 집중요소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효과적인 삶을 살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집중의 요소를 정리한 그림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항령" 혹은 "개인적인 미션 진술서"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독특한 방법, 중요 역활 그리고 궁극적인 삶의 유산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삶의 중요한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을 의식하거나 혹은 진술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삶을 살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집중하여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청사진을 가지고 집을 지어 가는 사람과 그냥 마음속의 생각만을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와 같다. "개인적인 미션 진술서"란

- 한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몇 가지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한 사람의 삶의 목적들을 본질적으로 서술하는데 몇 개의 문단으로 되어있고 현재까지 중요 요소에 있어서 알려진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 삶의 목적
    - 중요 역활
    - 독특한 방법론
    - 궁극적인 유산
- 삶의 존재(Being -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와 행위(Doing - 무엇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개발을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지면 관계상 개인적인 미션진술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서는 본 글에서는 더 이상 자세히 다룰 수가 없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미션진술서를 작성하고자하는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미 서론에서 언급한 책 중에서 Robert Clinton교수의 Strategic Concepts(1995)를 사용하여 작성할 수가 있다.

조상제사에 대한 선교학적 재조명

목차

목만수 교수
(본교 선교학 교수)

1. 서론

어떤 믿지 않은 청년이 신앙이 독실한 자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 자매가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 청년은 그 자매와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얼마 후에는 세례교인이 되었다. 마침내 이들은 결혼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시집은 독실한 불교가정으로 조상에게 제사하는 일을 해오고 있어서 이 자매는 제사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할머니께 여쭈었다. 할머니는 결혼 전부터 기독교인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던 손녀의 시집 식구들에게 조상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숭배이니 거부하라고 말하자니 앞으로 손녀의 어려운 시집살이가 눈에 훤히 보인다. 그렇다고 교회에서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배웠는데 죽은 조상에게 절하라고 하자니 신앙의 절개를 버리라고 하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도 없었다. 적당한 답을 찾지 못한 할머니는 그 손녀에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 1)

2. 본 글을 쓰는 목적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조상제사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가 자주 일어난다. 이 문제는 종종 서구문화의 사고와 가치관을 토대로 세워진 서구신학에 의하여 답변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결정은 현지인의 오랫동안 유지해 온 세계관과는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선교지에 많은 갈등과 함께 선교적인 과제를 남겨주었다.

이 논고의 목적은 이 땅의 문화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선교에 입각하여 현지인들로 하여금 조상숭배에 관한 문제를 현지인의 문화에 합당한 기독교적 해석을 하게 하고, 현지인으로 하여금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대안을 창조하도록 도움으로 선교의 극대화를 이루고자 함에 있다.

3. 조상제사에 대한 선교적 접근

복음은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복음을 수용하는 문화는 계속 변화한다. 조상제사를 복음의 가교로써 사용할 수 있는가는 선교지마다 다르다. 그 수용 여부는 조상에 대한 제사가 없는 서구문화의 선교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의 조상제사에 대한 이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 조상제사에 대한 현지인의 이해문제

조상제사에 대한 현지인의 이해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조상제사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한다면 분명히 제2계명 2) 을 범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지인들이 단순히 조상에 대한 예절로 이해하고 있다면 조상제사는 오히려 5계명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룬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조상제사 (Ancestor worship)라고 하기보다는 조상에 대한 공경심 (Honoring ancestor)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2) 양자택일 선교적 효과의 재고

조상제사의 거부로 인해 고난 당한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이 더욱 증거되었다는 이론을 재고해 보아야 한다.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믿고 순교적 고난을 감수한 사람들이 선교역사에 많이 간증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상제사로 인해 고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한 사람들을 오히려 전도한 사실도 많이 있다. 그러나 이면의 선교역사에는 조상 제사를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아예 기독교에 마음의 문을 닫고 영원히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멸망한 사람들도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조상제사를 거부한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들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조상제사를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에 필사의 거부를 하는 모습은 불신자들이 복음으로 나아오게 하는 걸림돌도 된다. 그러므로 선교적인 면에서 조상제사가 불신자들과의 문화적 마찰로 인한 복음의 문을 닫는 요인을 고려할 때 조상제사의 거부로 복음화에 유익을 주었다는 일방적 결론은 재고되어야 한다. 3)

3) 조상제사에 대한 사회의식 변화

손봉호박사는 한국인들이 조상숭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이 과거중심적인 가치관의 변화와 자연숭배사상에 대한 변화와 함께 전통구조가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대체로 조상숭배의 실행을 더 이상 한국사회에 도덕적 의무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조상숭배의 중요한 요소인 유교가 한국에서 급속히 쇠퇴한 이유를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런 조상숭배의 형태가 현대화 되어가는 한국사회에 그 의미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으며 설상 이런 조상숭배의 의식이 실행 될 지라도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4)

이런 손박사의 주장은 조갑수박사의 조사에서 더욱 뒤받침 해주고 있는데 조박사의 조사에 의하면 가족 중에 죽은 자를 아직도 당신의 가족으로 간주하고 있는가의 질문에 불교신도들 가운데 약18%, 유교신도 가운데는 약11% 무종교인들 가운데는 약16%만이 죽은 자를 아직도 한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고인을 아직도 당신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불확실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불교 신도들 가운데 약82%, 유교 가운데 89%, 무종교인 가운데 84%로 나타났다. 5) 이는 최근의 한국사람들이 조상에 대한 제사의 의미가 조상에 대한 영적인 교통보다는 조상에 대한 예식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조박사는 또 175명의 기독교인 상대로 조사한 결과 죽은자에게 존경의 표시로 절하겠는가에 관한 질문에 절대 절하지 않는다가 약 43%, 절하지 않지만 어떤 것이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지 잘 모르겠다는 같은 수치인 약 43%, 절한다는 4%, 절한다 그러나 고인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약10%로 응답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의 약14%가 고인에 대하여 절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상술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비기독인들 가운데 85.3%가 이미 죽은자에 대하여 어떤 영적 종교적 의미를 특별히 부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은 조상에 절하는 비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죽은 조상과 교통하고 있다고 믿은 사람은 별로 없다. 6)

개신교가 전파된지 100년이 넘도록 한국문화에서 빼놓수 없는 요소인 제사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인들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제사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는 개신교인은 과반수도 되지 않는 약 43%에 불과하다. 절은 하지 않지만 어떤 것이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인지 모르겠다가 확신을 가지고 절하지 않는 개신교인들과 같은 수치인 43%나 나타냈다. 이들에게 고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가는 개신교의 숙제로 보인다.

조상에게 절하는 약 14%에 달하는 절하는 개신교인들은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더 이상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상에 대한 예절이라고 믿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100년이 넘도록 개신교는 조상에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가르쳤지만 아직도 약 57%의 개신교인들이 조상에 절을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규정하는 것 같지 않다. 개신교가 복음을 받아드릴 당시에 조상제사를 우상숭배로 엄격히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조상제사에 대한 상당한 사회가치관의 변화가 있음이 분명하다. 7)

손봉호박사는 조상숭배의 쇠퇴에 사회적인 요인을 적합하게 지적하면서 한국사회에서 조상숭배, 즉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조상의 죽은 영을 달래는 등의 의미 등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주술적 의미를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한국기독교인들이 한국의 전통과 조상제사에 대한 투쟁이 맹목적인 서구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상제사는 제2계명 뿐 아니라 제5계명의 의미에서도 검토되어야 하며 한국기독교는 한국문화에 합당한 기독교문화를 창출하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8)

4) 조상제사가 없는 서구문화의 선교사

서구인들은 조상에게 절하는 의식은 없다. 기독교인들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조상제사라는 말은 서구문화권 내에서는 낮선 말이다. 서구선교사들이 타문화로 파송되기 전에 받는 훈련은 타문화를 이해하는 훈련보다는 대체로 서구신학의 지식을 쌓은 사람들이다. 이들의 눈에 타문화에서 행하는 생소한 이방문화의 예식과 전통의 의미는 왜곡되기 쉬웠고 그 중에 많은 것들은 이교화 심지어는 사단시 한 것은 선교역사의 커다란 교훈이다. 9)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지인들에게 스스로 자신의 특정 문화예식이 성서에 합당한가 결정하기 어려울 때 서구선교사가 대신 내려준 해석 중에 하나가 조상제사이다. 서구선교사들이 인내심을 갖고 현지인들에게 좀 더 시간을 주어 조상제사에 대하여 스스로 성서적인 해석을 그들의 문화 상황에 맞게 내릴 수 있게 했다면 조상제사가 우상숭배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상에 대한 예절인지에 대해 현지에 맞게 해석될 선교지도 많이 있었을 것이다.

5) 조상제사 문제에 관한 선교적 제안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는 절대적인 복음과 상대적인 문화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타문화에 복음이 심겨질 때 선교사 자신의 문화배경 때문에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가. 복음의 절대성

복음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가? 그렇다. 복음은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문화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은 초문화적 절대 복음이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의 죄의 용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랑의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화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복음은 모든 문화에 관계없이 절대로 변화할 수 없는 복음의 핵심이다. 이것을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부르고 싶다.

타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먼저 문화를 초월하여 변할 수 없는 절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 분 안에 모든 십계명도 완성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계명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시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원래의 취지대로 십계명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식일 10) 에 장님에게 눈을 뜨게 하셨고 손마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셨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그 당시 문화의 상황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시대의 가치와 문화에 적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올바로 해석되어야 한다.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죄의 용서,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의 평화의 복음이 전파되기도 전에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주제나 문화적 해석이 다양한 교리를 먼저 전하는 것은 선교전략상 문제가 있다. 선교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조상제사의 상황화신학 11)

조상을 숭배하는 선교지는 가부장적 제도가 강하고 가장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 문화이다.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는 우리 모든 조상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이시며 그들이 두려움의 대상인 조상이 아니라 탕자를 품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상으로 인도해야 한다. 조상을 절대화하는 가치관을 가진 현지인에게 신학적 상황화를 이루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최초의 조상임으로 소개한다면 현지인들은 쉽게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12)

동양문화와 아프리카 문화는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이다. 조상을 공경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로써 지켜왔다. 한국교회는 조상제사를 추도예배의 형식으로 바꾸는 지혜를 가졌다. 그뿐 아니라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백일 기도라는 것은 없지만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백일기도의 정성을 드린다. 백일기도는 이방종교에서 행하는 예식이었지만 한국인의 문화와 정서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 이를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학자 히버트 (Paul G. Hierbert)의 주장대로 나름대로의 부분적으로 나마 비판적 상황화를 이루었다.

한숭홍교수는 "21세기 한국 신학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논고에서 신학은 서양종교를 이론적으로 다룬 학문으로 서양 문화에서 태동된 학문이기 때문에 동양의 문화에 서양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는 기독교가 이식될 때 문화 혼합 내지는 문화 이질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다. 이러한 서양 사람들의 인식과 역사 구조속에서 해석되어진 서구적 신학의 독단에서 벗어나서 우리적 신학을 만들고 우리적 상황에서 해석되는 탈서구적 학문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13)

기독교교회사를 살펴보면 이방종교에서 행하던 예식도 기독교는 때때로 기독교문화의 유산으로 수용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이는 모두 그 당시 문화의 형식을 기독교적인 의미로 바꾸어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문화의 외형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는 시각에 따라 크게 다른 것이다. 대중음악을 사단의 도구로 보고 적대시하는 기독교인이 있는가 하면 대중음악을 적극적으로 교회 안에 수용하여 사용하는 교회도 있는 것 같이 조상제사에 대해 한국문화와 상황에 맞는 신학적 해석은 필요한 것인가?

다. 조상제사와 복음의 가교

선교사는 타문화권에서 현지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문화의 장벽을 넘지 않도록 할 때 선교효과의 극대화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a. 하나님의 목적

구약은 일부다처제였다. 아브라함, 욥, 다윗, 솔로몬 등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일부다처제였지만 하나님은 몇 천년을 참으셨다. 신약에 와서야 일부일처제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구속의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준 자루에는 은잔과 양식 값을 넣었는데 그 은잔은 요셉이 늘 점치는 은잔이었다. 요셉 스스로도 그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고 고백했다 (창44:5,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성서에 나타난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은 선교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백성이 흠이 없는 성결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방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의 가교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b. 복음의 가교로써의 모세

애굽을 도망한 모세는 우상을 섬기는 미디안 15) 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었다 (출2:21절). 낯선 땅에서 사위가 된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여러 종교적, 문화적 요구를 거절 하기는 쉽지 않았을 지 모른다.

그러나 모세가 후에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간증했다 (출18:1). 그러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간증을 모두 듣고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므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출18:10-11) 하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출18:12).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를 구원하신 일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모세가 장인의 종교와 문화에 극단적 대결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증한 고백이 그의 장인인 이방 제사장을 감동하게 한 것이다. 이방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의 복음의 가교역할을 통하여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물을 드리며 예배하게 되었다.

c. 할례가 복음의 핵심은 아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었다. 그들은 그들의 유대전통을 그대로 지켰다.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성전에서 말씀을 배웠고, 돼지고기를 금했고, 할례를 시행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따랐다.

그러나 행15장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의무화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기독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 드릴 수 있도록 결정한 성령의 역사였다. 예루살렘 회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수 천년동안 지켜온 할례가 이방인에게는 큰 장애물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의 종교예식과 문화의 다리를 넘지 않고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초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생명처럼 지켜온 할례를 더 이상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문화의 장벽을 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은 할례가 절대적인 복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은 조상제사가 절대복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복음 증거자들 특히 타문화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현지인들이 문화의 장벽을 넘지 않고 복음의 다리를 쉽게 건너도록 안내해야 한다.

d. 복음의 가교로써 조상공경 (Honoring ancestor)

선교신학자 맥가브란 (McGavran)은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 가족이나 친척 앞에서 공공연하게 그들의 조상에게 공경을 표하는 모습으로 절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5) 맥가브란의 이러한 주장은 조상에 대한 제사라고 하기보다는 조상에 대한 공경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맥가브란은 한 사람을 기독교로 인도할 때 그들이 속한 전통과 문화를 떠나지 않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에서는 전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주민의 38.9%가 복음화된 시모노 후쿠다 (Shimo Fukuda) 마을은 교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그들의 전통에 강한 연대를 가지고 있었다. 16)

이광순교수는 "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성명문 모델"에서 "복음화는 반드시 문화적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종래의 제국주의적 서구 선교가 범했던 것처럼 복음화와 식민지화 또는 문화적 종속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하고 있는 문화에 복음이 심어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17)

복음화가 된다는 것이 현지인들이 속해있는 문화를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 드린 후에도 계속 그들의 문화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교모델이라는 뜻이다. 18) 복음을 먼저 영접한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문화권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의 친척과 동료를 함께 그리스도에게 인도 할 수 있는 집단개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문화의 장벽을 넘지 않도록 배려해줄 뿐 아니라 오히려 조상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상제사 (조상공경)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복음의 가교로써 사용해야 한다는 맥가브란은 타문화권 사역에 분명히 새로운 선교전략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에 어느 나라보다도 조상에 대한 강한 연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조상의 관계는 특정한 날의 종교의식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생활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다. 조상 중에 존경받던 인물이 신화 속에 인물로 등장하여 재해석되고 이 신화의 인물은 결국 그들이 날마다 섬기는 신들로 등장하게 된다. 아직도 죽은 자와 영적 문제가 깊숙하게 관련되어져 있는 것 같은 일본문화에 적용하기는 다소 성급한 주장이라고 사려된다. 오히려 맥가브란의 주장은 일본보다는 사회의식변화로 인하여 조상제사에 대한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가 적어지거나 희박한 한국기독교에서 어른에 대한 공경으로 해석되어 복음의 가교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많다. 19)

6. 결론

선교학자 보쉬 (D. Bosch)의 지적대로 이제는 더 이상 타문화선교가 서구기독교의 신학을 획일적으로 수용하는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특별히 조상 제사가 존재하지도 않는 서구문화의 신학이 타문화권에 수용될 때는 더욱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조상제사가 우상숭배인가 아니면 조상에 대한 공경인가는 각 선교지 마다 현지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조상에 대한 문화의 형태와 의미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져야 한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전통종교예식에도 기독교는 적합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선교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질문

1. 한국의 조상제사는 우상숭배인가 아니면 한국 전통예절인가?

2. 불신가정에 시집간 기독교인과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미전도종족으로 파송된 선교사와 상이점은 무엇인가?

3. McGavran의 일본 조상숭배에 대한 제안은 한국교회에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한국교회가 그의 이론을 받아 드린다면 지금까지 조상숭배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신앙적, 정서적 갈등은 없겠는가?

4. 조상제사와 초대교회의 할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불신자 (이방인)에 대한 배려는 무엇인가?

5. 선교사는 조상을 숭배하는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제2계명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5계명의 차원으로 다룰 것인지? 기준은 무엇인가? 누가 정해야 하는지?

6. 한국교회의 조상제사에 대한 해석은 한국교회의 고백인가? 아니면 서구신학의 영향인가?

7. 한국천주교가 조상숭배를 거부로 인한 많은 사람의 순교는 당시 천주교 포교에 긍정적 아니면 부정적 요소가 되었는가? 한국천주교가 조상숭배에서 조상에 대한 예절로 바꾼 것은 복음에 대한 재해석인가? 복음에 대한 양보인가? 한국천주교가 조상숭배 또는 조상예절에 대한 성서적인 해석을 스스로 할 수는 없었는가?

8. 조상제사를 일사각오의 자세로 지키는 것과 복음의 가교로 이해하고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에 대하여 주관적, 객관적 신앙의 난이와 선교효과는 무엇일까?

9. 한국개신교에 복음이 전파된 후 조상제사를 조상에 대한 예절로 해석하고 이를 시행했다면 선교적 득실은 무엇이었을까? 또한 미래의 선교적 득실은 무엇일까?

10. 한국개신교는 조상제사에 대해 사회 가치관의 변화하는 함께 영원히 변화하지 않는 절대복음을 비기독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한국개신교는 조상제사에 대해 한국사회에 맞게 신학화하고 있는가?

11. 조상제사에 따른 종교적인 의식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종교적 의식의 의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의미는 변화가 가능한가? 조상제사의 의식 속에 성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가? 성서에 따라 결정된 그 의미에 합당한 의식의 형태는 누가, 언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조상제사의 의식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때 혼합종교 (syncretism)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12. 조상제사에 대해 신학, 선교학, 그리고 교회는 어떤 조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1) 조상제사는 한국 뿐 아니라 조상을 공경하는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일 경우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부부문제, 부자문제, 결혼문제 등의 가정문제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사회 윤리와 제도에 커다란 관계를 맺고 있다. 조상제사를 한 사회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으로 이해 또는 우상 숭배로 간주하는가에 따라 사회에 커다란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이다.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20:4, 5절전반). 여호와증인은 국기에 대한 경례는 제2계명을 범하는 우상숭배에 해당한다고 믿어 국기에 대한 경례를 순교적 자세로 거부한다. 남미에 있는 보수교단 중에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거는 것은 제2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금한다.

3) 1898년에 개화의 바람의 와중에서 영천 군에 소재한 덕천교회 교인들이 그 동리사당을 파괴하여 불태워버렸다. 이를 분개한 동리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그 교인들을 구타한 일이 생겼다 (박근원, "한국기독교와 조상제사" 복음과 문화 중에서, 1991, p. 350,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4) Bong Ho Son, "Socio-Philosophical Background for Change of Attitude Toward Ancestor Worship." in Christian Alternatives to Ancestor Practices. Bong Rin Ro, ed.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1985, Pp. 236-242.

5) Kap Soo Cho, "Ancestral Practices in Korean Churches." Ph. D. dissertatio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0, P. 311.

6) 조박사의 논문은 1990년에 출판되었으며 자료조사는 그 전에 된 것과 상술한 조사내용이 이미 10년 전의 자료에 근거한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사람들이 조상제사를 통하여 고인과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다고 믿는 확율은 더욱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7) 현대사회연구소가 1990년에 조사한 전통식 유교제사에 대하여 목사가 7.9% 찬성, 92.1% 반대하고 신부는 86.5% 찬성, 13.5%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규, "한국 사회와 종교갈등" 복음과 문화 중에서, 1991, P. 332, 재인용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전술한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천주교 신부는 조상제사를 한국의 전통고유 문화로, 대부분의 개신교 회자는 아직도 유교제사를 조상숭배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Bong Ho Son, Ibid., p. 244.

9) 1920년에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이상재와 양주삼 등이 제사문제 가지고 논쟁하였는데 이상재선생은 일본의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이다. 그러나 조상에 드리는 제례는 제5계명에 속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므로 기독교인들이 조상제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상재선생의 의견보다는 당시 서구 선교사들의 지원과 옹호를 받았던 양주삼목사 쪽이 대세를 지배하였는데 이는 당시 선교사들과 한국개신교 지도자들이 제사문제를 일본의 신사참배문제를 동일한 문제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박근원, "한국기독교와 조상제사" 복음과 문화 중에서, 1991, Pp. 350-351,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0)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칠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31:15).

11) 한국교회는 상황화교회 (Contextualized church)와 토착화교회 (Indigenous church)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있다. 토착화교회는 자치 (Self-governing), 자전 (Self-propagating), 자립 (Self-supporting)을 이룬 교회를 칭하며 상황화교회는 토착화교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신학을 (Self-theologizing)을 이룬 교회를 말한다. 선교지교회는 때때로 토착화의 3단계 과정을 이룩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먼저 신학적인 이론이 선행하는 상황화교회 단계로 나아 갈 수 있다.

12) 나이지리아 (Nigeria) 개신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이 조상 대대로 사용해오던 오르룽 (Olorun) 이라는 신을 상황화하여 지금도 전능하신 기독교 하나님을 오르룽이라고 부른다. 이들에게 이미 사용되었던 오르룽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서구신학적 하나님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했다면 선교지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었을 것이나 나이지리아에 파송된 서구선교사가 선교지의 상황신학의 좋은 예를 남겼다 (Man Soo Mok, Ibid., p. 221). 나이지리아에서는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의미가 나이지리아인들에게는 올바로 이해되어 삶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에서 양을 치는 목자는 정신적 또는 육체적인 부진한 사람들 외에 정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13) 한숭홍 "21세기 한국 신학의 과제와 전망" 장신논단, 제12집, 특집: 21세기 우리 교회와 사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4) Donald McGavran, "Honoring Ancestors in Japan" in Christian Alternatives to Ancestor Practices. Bong Rin Ro, ed.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1985, Pp. 303-317

15) 창36:35, 민22:4, 왕상11:18, 삿6:2 참고.

16) Jan-Martin Berentsen, "Ancestral Rites: Barrier or Bridge?" in Christian Alternatives to Ancestor Practices. Bong Rin Ro, ed.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1985, p. 289.

17) 이광순, "선교 신학의 정립을 위한 성명문 모델" 장신논단, 제12집, 특집: 21세기 우리 교회와 사회,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6, p. 345.

18)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그대로 지내라" (고전7:20).

19) "기독교의 지도자로서 자기 가정의 제례를 계속할 뿐만 아니라 가문과 문중의 시제에까지 빠지지 않고 참여한 분들이 있다는 말이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 씨족 문중의 만장일치의 결의로써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기로

한 사건이 일어났다. '당신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왜 못 믿겠느냐' 는 것이었다. 이 목사들이 아무 비판없이 전통 상례나 제례를 반복했을 것 같지는 않다. 기독교 신앙적 의미를 담아 간소화하고 새로운 의미 부여를 했을 것이다. 훌륭한 신앙적 증언이 아닐 수 없다." (박근원, 한국기독교와 조상제사, 복음과 문화 중에서, 1991, Pp. 344-345, 서울: 기독교서회).

주요참고문헌

한국기독교학회 편

1991 복음과 문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Cho, Kap Soo

1990 "Ancestral Practices in Korean Churches." Ph. D. dissertation,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Kim, Myung Hyuk

1985 "Historical Analysis of Ancestor worship in the Korean Church." in Christian Alternatives to Ancestor Practices. Bong Rin Ro, ed. Pp.163-174. Asian Theological Association.

McGavran, Dona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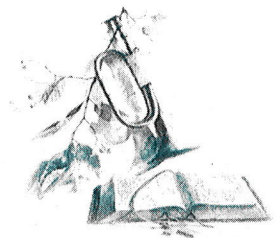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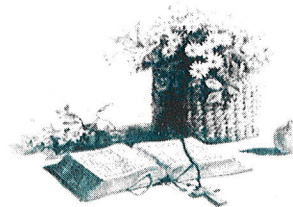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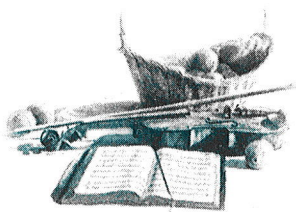
1985 "Honoring Ancestors in Japan" in Christian Alternatives to Ancestor Practices. Bong Rin Ro, ed.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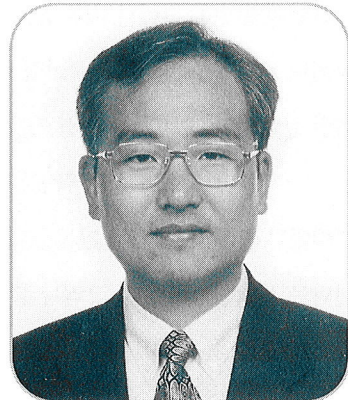
Mok, Man Soo

1999 "The Practices of Macumba in Afro-Brazilian Religions: A Description and Evaluation from Missiological Perspective." Ph. D. dissertation,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on, Bong Ho

1985 "Socio-Philosophical Background for Change of Attitude Toward Ancestor Worship." in Christian Alternatives to Ancestor Practices. Bong Rin Ro, ed. Pp. 234-244. Asia Theological Association.

상기 소고는 2000년 9월 기독교사상에 게제된 글을 개정시킨 내용임

선교의 제자리 찾기

황의정 목사
(본교 선교학 교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마6:9-10).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을 우리의 최대의 사명과 목표로 삼아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으며, 예수님의 최초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18-20절의 지상 명령과 함께 이 기도의 내용을 연결하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오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Jesus Is Christ!)"라는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다.

존스톤은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에서 선교가 교회에서, 성경 해석에서, 용어와 신학에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소외되어왔음을 논증하면서 한국 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의 교회에는 선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사고 방식과 세계관이 만연해 있다." 1) 고 말했다. 교회의 정의와 목적과 속성을 규정하는 불충분한 신학이 선교를 배제한 결과를 낳았다. 밴 엥겐 교수는 교회의 목적을 koinonia(교제), kerygma(선포), diakonia(봉사), 그리고 martyria(증거)라고 정리하면서 "선교적 교회는 회원들이 교회가 세상 안에 존재함을 교제와 선포와 봉사와 증거에 점점 더 참여함으로써 나타낼 때에 부상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 또 교회는 하나이며(Unity), 거룩하고(Holiness), 보편적이고(Catholicity), 사도적인(Apostolicity) 속성을 가지고 있다. 3) 성도의 교제와 선포와 봉사는 세상을 향한 증거를 위한 것이며, 거룩하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사도적 직무인 선교적 교회이어야 한다.

성서 해석에서 선교를 배제한 예는 아브라함의 소명에서 세계를 향한 선교적 소명을 간과한 것과 함께(창12:1-3), 사도행전의 해석에서 원 사도들이 지상 명령에 얼마나 지체하였는가 일 것이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4)는 명령을 받았는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후에도 계속 예루살렘을 고집하고 있었다. 핍박이 나도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피난 간 신자들이 여기 저기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개척되어도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안디옥에도 바나바를 보낸 것이다. 4) 그러나 2천년의 신학의 역사에서 선교학이라는 분야가 최신의 분야라는 것과 함께 조직신학, 성서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등에서 여전히 선교학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고 독자적인 영역을 계속 구축해 가는 것은 진지하게 고려할 부분이다.

복음서의 기록 목적 중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증인들이 사라져 가는 현실에서 새로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입으로 전해지던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다.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편지가 체계적인 신학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통하여 개척한 교회와 그 과정에서 얻은 일군들에게 당시의 필요를 따라서 가르침을 주거나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교훈과 해결책을 제시한 것을 간과한 채 연구를 지속한다면 원래의 의도와 의미를 바르게 해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4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때까지 교회는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모아진 27권을 갖지 못했으며, 그 책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의든 타의든 자기가 처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나 로마 교회 등 초대 교회의 핵심 교회들을 누가 개척하였는지 모른다. 이렇게 수세기 동안 전도의 삶이 신자들의 보편적인 삶이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편지들에는 전도에 대한 직접적인 강조가 일반적 통념이나 기대보다 훨씬 적은 것이다.

초대 교회의 신학 작업은 교회의 선교에서 장애가 되는 이단 사상을 대항하는, 지극히 선교적인 동기의 학문적 작업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기독론과 구원론 등이 정립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선교적 교회였으며, 초대교회의 신학은 선교신학이었다. 그러나 중세의 암흑기에는 교회의 선교적 소명과 속성을 상실하고 말았다. 더욱이 제도화된 교회의 타락의 물길을 돌리려는 갱신과 부흥 운동들이 다양한 수도원 운동 등과 함께 지속되었으나, 몰이해 속에서 무시와 배척과 핍박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는데, 제도권의 교회가 이 일을 앞장 선 것이다. 그리고 후세의 교회 역사는 교회의 소명과 본질을 인식하였던,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던, 창조적인 소수에 대하여 무관심한 채, 강자의 입장에서 교리와 교회의 제도적 발전에 더 치중하였다.

교회는 많은 시행 착오를 거쳐서, 교회가 회중 구조와 선교 구조로 존재해 왔으며, 이 두 구조가 공존하고 협력할 때에 가장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5) 천주교회는 13세기에 도미니칸 수도회와 프랜시스칸 수도회를 승인하여 선교구조와 회중 구조의 조화를 이루고, 16세기에 예수회를 승인하여 유럽의 세계 팽창기의 선교사역을 감당할 인력과 전략을 세웠었다. 이에 비하여 개신 교회는 종교 개혁 이후에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모라비안 운동, 그리고 감리교회/복음주의적 각성 운동 등을 통하여 갱신과 선교 운동이 있었으나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선교 운동은 1792년 와서야 비로소 윌리엄 케리의 침례교 선교회 구성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1910년까지의 기독교 선교의 위대한 세기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성령의 창조적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교 구조를 만들어내는 전통을 세워온 것이다. 6)

결론적으로, 선교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오랫동안 잊혀지거나 무시되어왔으나 이제 모든 분야에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한다. 교회의 정의와 목적과 속성에서, 성서 신학에서, 교회사에서, 그리고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에서도 선교적인 관점에서의 새로운 시도가 요청된다. 어느 학자가 선교 구조를 무시함으로써 교회 없는 선교회와 선교 없는 교회가 생겼다고 했는데, 오늘날 “신학 없는 선교”와 함께 “선교 없는 신학”을 경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각 분야의 신학과 실천에서 선교적 안목으로의 재정립을 시도하여 선교의 제자리 매김을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교회와 성서와 신학의 출발에서 선교가 감당했던 역할처럼, 오늘날 분야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신학을 다시 통합하는 축으로서 선교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온 천지에 가득하게 될 날을 더 속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 패트릭 존스톤,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이창규, 유병국 공역, 서울:WEC출판부, 1999.

2) Charles Van Engen, *God's Missionary People: Rethinking the Purpose of the Local Church*, Grand Rapids, MI.: Baker Book House. 1991. p.89.

3) Ibid. p.82.

4) Don Richardson, *The Hidden Message of "Acts" in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pp. A110-120. R. D. Winter & S. C. Hawthorne eds.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2.

5) Ralph D. Winter, *The Two Structures of God's Redemptive Mission in Perspectives on World Christian Mission*. pp. B45-57.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1992.

6) Eui J. Whang,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 of Mission Structure, An Unpublished Doctoral Tutorial Paper*, p.52. Pasadena, CA.: Fuller School of World Mission. 2000.

현대지식인의 복음화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

황마리아나 교수
(본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

Introduction (소개)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교회는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곧 교회의 목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 교회교육의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교육의 관점에서 보자면, 첫째로 그것은 인간을 깨우쳐 구원하기 위한 말씀의 선포였으며 가르침 이었다. 두번째로 예수님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성숙하도록 훈련 시키셨다. 세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복음을 널리 세상에 전하도록 특별히 가르치셨다. 즉 교회교육의 목적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한 개인의 구원, 영적 성숙,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구원 받은 자로서 교회의 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다. (골로새서 1:28).

교회의 사명에 비추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전파는 교회교육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21세기 (초) 현대주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로 감당해 가고 있는지 재 검토해 보아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과연 교회는 복음전파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오고 있는지, 기독교교육은 교회의 사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수단으로써 성공적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는지 되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동 글을 통해서 저자는 21세기 (초) 현대주의의 의미를 재 인식하고, 그가 교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복음전파의 어려움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취해야 할 교육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복음전파와 기독교교육

신학자인 브르그만 (Brueggemann) 에 의하면, 성서적인 관점에서의 복음전파는 다음의 세가지 사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 사건은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이다. 두번째 사건은 2000년 동안 중재자들에 의해서 전해져 내려 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이다. 세번째 사건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응답으로써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이는, 곧 말씀을 기초로 한 신앙인들의 삶의 변화를 말한다. 그러므로, 복음전파는 이 세 사건들이 모두 함께 일어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브르그만에 의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복음전파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앞서말한 두번째 사건 즉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세번째 사건으로서의 실재적이며 현재적인 삶의 변화에는 그다지 큰 비중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브르그만은 복음전파는 교회의 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

기는 하지만 교회성장이 복음전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확장이 복음전파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않된다 고 보고,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앙의 공동체 즉 교회로 초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도록 도와주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진정한 복음전파의 목표는 복음을 들음으로 해서 한 개인의 세계관,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아인식에 대한 변화가 오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을 알기 전과는 다르게 살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전파는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이들로 하여금 삶으로 실행되었을 때 복음 전파는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그는 주장한다.

현대 지식인에 대한 초 현대주의 시대에 대한 이해 (Postmodernism)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로부터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던 그 시대를 상기 시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며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 하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행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한 것이라. . . .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침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제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신명기 5:33-6:9).

가나안 땅에는 이방 신들이 많았으며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 이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위 환경의 영향을 받아 이방 신을 섬기고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부모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들을 부지런히 교육시킬 것을 명하셨다. 오늘날 (초) 현대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이 시대의 많은 이방 신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과 생각을 지배 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인생의 쾌락을 추구하는 쾌락주의 (Hedonism),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두는 세속주의 (Secularism),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는 물질 만능주의 (Materialism), 신은 많고 신앙도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주의 (Pluralism), 모든 사물은 인간 중심으로 창조 되었고, 신앙과 진리도 인간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 (Human-centeredness),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상대주의 (Relativism) 등으로 이러한 (초) 현대주의 시대(Postmodernism)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상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며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의식 혹은 무의식 속에서 이러한 초 현대주의 사상들 즉 이방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뒷전에 내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기독교를 옹호하며 더 나아가 21세기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전파 할 것인가?

위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왜 저자는 전도 대상자들 혹은 세상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을 21세기 지식인이라고 표현하는 지에 관해 먼저 설명하여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지식인이라 함은 자신이 전문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에 애정을 갖고 그 학문의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전문인들을 가르켜 말한다. 하지만, (초) 현대주의 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에게 지식인 혹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초현대주의 시대는 유일신 이신 하나님의 Truth (진리) 혹은 신의 존재의 Reality (실재) 가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이다.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리의 보편성은 사라지고, 상대주의적인 진리만를 주장하고 있다.

신학자 필립 (Timothy Phillip) 은 지적하기를 초 현대주의 사상중의 하나인 다원론(Pluralism) 사상은 각 개인이

진리(truth)와 실재(reality)의 근원이 됨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다원론은 인간 개인이 진리 혹은 영적인 힘의 근원이 되며 각 개인들은 자기 자신의 방법 안에서 지식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쉬 (Lasch) 는 현시대 우리사회의 다원론은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날 젊은이들은 현대 교육제도에 의해 잘못 인도 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교육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의 교육제도는 젊은이들에게 한 개인으로서 자신들의 인생의 가치관을 창조해 나가도록 그들의 권리를 장려 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누리고 있지만, 문제는 그 젊은이들이 자신들이 누리는 가치관이나 권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그 이념과 가치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역설한다. 그는 또한 주장하기를 초 현대주의의 교육제도는 젊은이들에게 생각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가르치기는 하나, 그 젊은이들은 제대로 책을 읽을 수도 쓸 수도 없으며, 가치관에 대한 혼동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 들이 현대의 지식인을 정의하는데 있어 문제점을 가져 다 주는 초 현대시대의 어려움 들이다. 왜냐하면, 초 현대주의는 모두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지식과 믿음대로 사회를 대표하며 지식인으로서의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대 지식인들의 복음화를 위한 문제점들

저자는 앞서 오늘날 초 현대주의 시대가 가져 다 주는 복음전파의 어려움을 인식하였다. 그럼 이런 시대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방법을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복음전파를 위해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들인지 알아 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교회는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관심거리와 문제점들로부터 많이 분리되어 있다. 두번째로 교회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을 잃고 있는데, 이유 중의 하나는 세상과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이다. 세번째로는, 현대인에게 종교는 단지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목적을 띄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1) 세상의 문제들에 대한 관심의 부족

요한복음 3:16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음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세상으로 보내지셨고,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사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듣으시고 또 나누어 지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그 자신을 성전 안에 숨기시지 않으셨으며, 그는 그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교회 안의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5:32).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관심거리와 문제점들을 예수님이 보시듯 보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의 심각성에 비해 교회에서는 사회문제의 기독교적 해결책을 위해 깊숙이 관여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세상의 문제로 구분하여 자신들을 이 세상의 현실로부터 분리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 월레스 (Wallace) 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이웃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정의 와 연민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기독교 신앙은 이웃과의 건강한 관계성을 만들어 가는 것을 도와주는데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교회가 종교의식과 율법들을 상기 시키며, 그들을 세상과 분리하여 세상의 문제들을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않된다 라고 주장한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동성연애자, AIDS , 약물 중독, 가정 폭력, 십대 미혼모 임신, 그리고 자녀 학대 등의 큰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교회가 이들 문제점들을 기독교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충분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는 가를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많이 미비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러한 문제점들에 부딪쳐

을 때 교회를 찾아 문제의 해결 혹은 도움을 청하기 보다는 그들의 문제점들을 안아주고 받아주는 세상의 사회 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교회는 이러한 세상의 문제점들을 좀더 넓게 포용하여야 하겠으며, 세상 가치관에 준한 문제의 해결책 보다는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도록 도모하는데 노력해야 겠다.

브르그만 또한 복음 전파와 사회 문제점은 분리되어서는 않된다고 역설한다. 만약에 교회에서 복음전파에만 주력을 한다면 결과는 무엇을 위한 복음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낳게 할 것이며, 반면, 교회가 사회 문제점과 사회 활동에만 주력을 한다면 결과 또한 무엇을 근거로 한 그리고 무슨 결과를 위한 사회활동인가 하는 의문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자면, 복음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지혜와 길을 제시해 주며, 반면, 사회활동의 근원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함으로써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회에 대한 참여는 이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의 일부분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길이다. 그러므로, 궁극적인 복음전파의 목적은 분리되어 있는 복음전파와 사회의 문제점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포용 하는데 있다. 상처 받은 사람들의 심령의 치유와 회복에 무관심하고 그리고 억눌린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복음전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수 도 있다.

세상의 문제점들 뿐 만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관심거리가 또한 무엇인지, 어떤 관심거리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멀리하게 하는지 교회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특별히 초 현대주의의 다원주의 사상은 우리 사회에 많은 신들 (gods) 과 인간의 초능력(supernatural power) 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사상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만들어 가는 과학의 힘으로 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현대인들에게 급격히 인기를 얻어가고 있다. 요가 (yoga) 그리고 뉴에이지 그룹 (New Age Group) 등이 그런 사상중의 하나이다. 많은 미국의 현대 지식인들이 이러한 다원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으며 그런 사상에 바탕을 둔 삶으로 그들의 다원주의에 대한 믿음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다원주의 사상을 부정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는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가르치지를 않아 많은 성도들을 혼동시키며 심지어는 신앙인들 조차도 이방 신을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상을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삶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오래지 않은 이야기 이다. 저자의 친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왔다. 본인은 호흡조절을 이용한 정신 운동을 자주한다고 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은 이단 종교 이기 때문에 삼가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다. 친구는 호흡운동이 왜 잘못된 것이며 왜 이단 종교인지 잘 이해할 수가 없다며 신학을 공부한 저자에게 질문 해 왔다. 저자는 다시 그 친구에게 목사님께서 왜 잘못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지 않으셨느냐고 물었다. 그 친구는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설명이 없었기에 나에게 묻고 있지 않느냐고 반박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 이었다. 이젠 교회에서도 교인들에게 무작정 이단이니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그러한 이단의 사상에 영향 받은 사람들을 이단자 취급하며 분리하는 방법은 비효과적이라고 본다. 교회는 세상에서 사람의 흥미를 끌고있는 사상들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사상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지 충분히 연구하여,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었는지를 신앙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잘못 영향을 받고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사상을 판단하고 외면하기 보다는 세상을 위해 예수님의 좀더 큰 마음을 본 받아 그들을 포용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함이 교회 교육의 의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혼잡한 다원주의 사상으로 진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독교 교육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교회와 세상간의 가치관의 차이점

두번째 문제점으로서는 교회는 오늘날 젊은 세대를 복음화 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데, 이유는 현 시대 교육체계는 기독교 가치관과는 동 떨어지거나 상반된 가치관을 가르치며 젊은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혼란을 겪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교회에서는 젊은 세대 교인들을 교회로부터 잃어 버리고 있으며, 또한 교회로 인도하기가 매

우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한때는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귀히 여기고 인생의 목적을 그러한 인격의 성취를 위한 것으로 여긴 때가 있었다. 1646년 하바드 대학 설립 시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고. . . . 예수님은 모든 지식의 기본 이다" 라는 이념에 기초를 두고 모든 교육을 실행하셨다. 그리고 한때는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으로 여겨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의 공공 교육 기관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출하려는 목적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여 돈, 명예, 권력, 성공 등,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 일은 많은 젊은이 들에게 더 이상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지 않다.

반면, 콕스 (Harvey Cox) 는 교회는 젊은이들을 향한 복음전파의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교육의 세속화에 떠 맡겨서는 않된다고 주장한다. 대신, 교회는 교육제도를 정립하고 결정을 내리며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계의 지도자들을 복음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콕스는 주장하기를 교회가 기독교교육기관을 따로 세우면서 세상의 교육제도와 분리한 것은 실수 였으며, 따라서 세상의 교육제도에 교회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한다. 교회가 스스로를 세상의 제도로부터 분리하기 이전에 세상의 교육 기관들과 지식인들과 먼저 화합을 이루었어야 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불구하고,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도와주고 세상의 혼잡한 많은 가치관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

(3) 교회에 대한 지식인들의 잘못된 인식

교회가 대면하고 있는 세번째 어려움은, 많은 지식인들은 복음이 단지 어떤 종류의 종교에 불과 하며 또한 교회교육을 윤리 교육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 종교들과 다른가에 대해 가르치는데 실패한데에 대한 책임도 있다. 하지만, 월레스 (Wallace) 에 의하면, 많은 현대 지식인들에게 종교를 갖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그들의 현재의 삶을 부요롭게 하기위해서 이지, 그들의 영생를 위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 또한 많은 지식인들은 종교는 이웃에게 선의의 행위를 행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표현하기를 많은 지식인들은 단순히 생각하기를 "종교적인 전통은 존경할 만 하다, 그 이유는, 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행위의 필요성을 인식 시키고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의 근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p. 91). 라쉬 (Lasch) 또한 그의 견해를 표현하여 많은 지식인들에게 종교는 그들의 지적인 그리고 감정의 보호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지 그들에게 삶의 만족과 자존심에 대한 도전으로 사용되어 오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는 지적하기를 종교는 이제 많은 지식인들에게 무관심해지거나 혹은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종교의 진리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윤리적인 행동 혹은 감정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것이고 또한 기독교인들을 다른 종교로 전환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끔은 기독교인들의 삶보다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우월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 지식인들을 위한 효과적인 복음전파 방법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어떻게 현대의 지식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전파를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점은 교회는 세상의 관심사와 문제점들로부터 자신을 분리하여 생각해서는 안되겠다. 오히려, 교회는 세상의 관심사와 문제들 그리고 그들의 현실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겠다. 그리고 세상의 관심과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시키는 데 더욱 주력해야 겠다. 두번째로는 교회교육에 있어서 복음전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그 최

종적인 목표를 세워서는 안되겠다. 대신, 복음전파는 말씀을 통해 삶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초점을 두고 교육해야 겠다. 세번째로 기독교 교육기관들은 교육의 초점이 성직자 혹은 교회의 지도자 양성 뿐 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세상적 현실에 대한 포용과 이해

먼저, 콕스 (Cox) 는 그의 저서 세속도시 (The Secular City) 에서 교회는 그들의 관심을 영생에만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계에도 관심을 두어야 겠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많은 현대 지식인에게 종교는 더 이상 인간들에게 필수적인 관심사가 아니며, 이제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속한 인생관이나 가치관 정도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회퍼 (Bonheoffer) 또한 복음전파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방법의 표현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거리감을 가지지 않도록 그들의 생각과 삶에 맞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교리 (Doctrine) 에 얽매여 형이상학적인 것을 논의하기 보다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의 관심과 문제들을 나누며 돌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브르그만 (Brueggemann) 도 역시 복음전파에 있어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함을 지적한다. 그는 우리가 믿지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할 경우 관념적인 언어의 사용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자아 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언어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상반되는 것 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언어를 포함한 우리 매일의 삶이 복음전파의 도구가 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복음전파를 위한 언어는 곧 이 세상의 언어 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좀더 심각하게 사회의 문제를 직시하여야 하겠고, 그것들을 위해 관심을 쏟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복음전파는 교회가 이세상의 고통에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겠다. 요한복음 1: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 복음은 육신으로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구속 받은 인간의 본보기로 우리와 함께 사신 말씀 곧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 뿐 아니라 현재 이땅에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으로 시작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13:33; 누가복음 13:20f; 17:20f). 그러므로, 복음전파는 말을 통한 가르침만으로 그쳐서는 않된다. 복음전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동반되어야 하며, 그 능력으로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가르칠 때에 복음이야 말로 진리라는 것을 증명될 수 있다. 진정한 복음전파는 말씀과 행위,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2) 복음에 의한 삶의 변화

두번째로 복음전파는 말씀의 가르침에만 그의 초점을 맞추어 져서는 안된다. 복음전파는 가르침과 동시에 올바른 삶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겠다. 기독교교육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이세상에서 사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육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천국 (the Kingdom of God) 을 가르치셨다. 그의 천국 가르침은 천국은 이미 이땅에서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앞으로 완성될 천국을 말씀 하셨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현실화 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땅에서 실현하셨던 일들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통한 화합과 회복의 공동체로서 복음을 모르는 현대의 지식인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직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열려진 마음을 갖고 그들과 대화 하여야 겠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 육신이 되어 이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 그리고 현대의 지식인들이 겪는 아픔, 자랑, 그리고 소망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

성서적인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인들이 존재해 왔다. 진정한 지식인들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

의 아픔과 소망을 나누며 그들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삶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도록 도와 주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지식인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누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지도록 가르쳤다. 예수님은 또한 진정한 지식인으로 그의 지혜는 그 당시의 전문 지식인들에게 도전이 되었으며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사도 바울 또한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이방인에 대한 전도 사역을 통해 그는 방황하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으며, 그의 인생을 바친 사역으로 말미암아 세계 역사에 획을 긋는 업적을 이루었다.

초 현대주의 다원론 사상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 불리움을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 세상에 밝히는 일에 주력하여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화해를 위해 불리움을 받았다. 예수님의 지체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리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로써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고통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야 하겠다.

(3) 전인적 지도자 양육을 위한 기독교교육

세번째로 기독교 교육기관은 성직자 및 교회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한 교육 뿐 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인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을 세상의 지도자를 키워나가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여야 겠다. 기독교 학교는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기독교 학교는 지적으로 우수하고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또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때는 성직자들을 시대의 지식인으로 취급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19세기의 신앙부흥운동 (Revivalism) 으로 말미암아, 개인의 신앙 경험, 직감, 그리고 감정을 중요시 여기며 교회교육은 영적세계를 다루는 일로 인식되어 신앙인들의 지적인 성장을 소홀히 여긴 때도 있었다. 현재도 그러한 인식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교회교육에 있어 지적인 성장보다는 감정에 더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놀 (Noll) 은 그의 저서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복음주의적 사고의 스캔달) 에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기독교교육을 위해 지식을 활용하는데 실패하였다 라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정치, 경제, 과학, 문학 등의 지식인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실패 하였다 라고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적으로 뛰어난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복음전파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방법

교회는 그리스도의 "진리" 를 가르치기 위해 교육하여야 하며, 또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교회는 현대 지식인들을 복음화 하여야 한다. 파머 (Palmer) 는 진정한 교육에 대해 이야기 한다. 가르치는 것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누구가 가르쳐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파머는 진리의 본성은 무엇인가, 진리를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진리를 가르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진리를 삶으로 실천하도록 장려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였다. 그리고 그는 교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와 세상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란 진리와 세상과의 관계성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교육의 목적은 진리를 추구하는 열정을 갖도록 격려하며, 진리를 발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파머 (Palmer) 는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이시고, 진리를 배우는 목적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는 것 만이 기독교 교육의 긍극적인 목적이 될

수 는 없다. 그와 더불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진리에 순종하는 삶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초 현대주의 다원론이 지배하고 있는 현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진리를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하겠는가? 파머는 주장하기를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진리는 어떤 사물처럼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 반면 진리는 서로의 관계성을 통해서만 가르쳐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리는 진리를 올바로 분별함을 통해서 삶으로 실천될 수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진리에 대한 어떤 정보를 기억하도록 재촉하기 보다는 진리를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의 책임인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학생들로 하여금 진리에 순종하며 그들 자신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을 갖으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도와준다.

기독교교육의 중심은 유일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인 것만으로 교육해서는 안되겠다. 반면,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믿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따를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의 초점이 정보제공에 있기 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쏟아져 넘치는 수 많은 정보들 가운데서도 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어야 겠다. 그러면, 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교육하며 키워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은 현재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이 과제에 대한 토론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다.

결론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복음전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삶을 변화 시키는 힘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닮도록 도와주며 나아가서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사람은 한 개인을 인격적으로 변화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 단지, 인격적인 변화는 개인 스스로의 결심이 요구된다. 한 개인이 어떤 인격자를 모방하여 변화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따라서, 기독교교육은 복음에 대한 정보제공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한 개인 스스로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서 변화하기를 추구하며 노력하도록 인도해 주는 데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교육의 목적은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한 수단으로써 말씀을 기초로 한 진정한 지식인을 키워내는 데 있다. 진정한 지식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로서, 잡다한 세상 가치관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 진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으며, 그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특별히 초 현대주의 시대에 성장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현대 지식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지식인을 키워내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초 현대주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복음화의 대상자를 먼저 잘 파악하고 그들을 이해하여야 한다. 현대 지식인들의 사고 방식과 그들이 받은 교육내용은 전통적인 교회의 가치관과는 많은 거리를 두고 있다. X-세대와 그 후의 세대들은 더구나 기성세대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관과 인간관 그리고 신에대한 인식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교회교육의 현주소를 돌아 보는 것은 시급한 과제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며, 그 일을 담당할 다음세대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위에서 간략하게 돌아 보았다. 첫째는 교회의 교육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하였다. 자기 고집에만 빠지는 교회교육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재인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현실에 적합한 기독교교육을 재정립 하여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인들이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여야 한다.

둘째로, 복음의 전파는 개인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최종적인 목표를 두고, 지식에 머물지 않는 실천적인 복음의 전파에 긍극적으로 주력하고 또 그를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필자는 기독교의 교육이 사람들의 삶과 직결되는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며 긍극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복음의 생활화를 강조하기 보다는 생활의 복음화가 되도록, 즉 각 개인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함에 목표를 두고 교육하여야 겠다.

참고문헌

Bethge, E. (1976). Costly grace: An illustrated introduction to Dietrich Bonhoeffer. San Francisco, CA: Harper & Row Publishers.

Brueggemann, W. (1993). Biblical perspective on evangelis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Cox, H. (1965). The secular city. New York, NY: Macmillan Company.

Downs, P. G. (1994). Teaching for spiritual growth. Grand Rapids, MI: Zondervan Publishing House.

Lasch, C. (1995). Revolt of the elite and the betrayal of democracy. New York, NY: W. W. Norton & Company.

Middleton, J. R. & Walsh, B. J. (1995).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Noll, M.A. (1994).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Phillips, T. R. & Okholm, D. L. (1995). Christian apologetics in the postmodern world. Downer Grove, IL: InterVarsity Press.

Said, E. W. (1994). Representations of the intellectual. New York, NY: Vintage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d.

Wallace, M. I. (1996). Fragments of the spirit. New York, NY: Continuum Publishing Co.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이사무엘 목사 (M.Div.)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아 29:11-13

1998년10월30일 내일의 결과도, 보장도 모르지만 우리는 (나, 사모, 아들, 딸) 전기의 혜택도 누릴 수 없는 또 우리의 짐을 들여놓을 수도 없는 곳, 건믈이라곤 거의 3년여 동안 주말마다 올라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마루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지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주신 192 square feet의 작은 예배당과 1998년8월 summer Bible Camp를 위해서 마련되어진 200 square feet의 다용도실, 여행용 trailer,그리고 우리가 기거할 수 있는 trailer Home 이 있었지만 밤에는 촛불과 lantern으로 지내야하는 곳, Neenach, West Lancaster로 이사를 하였다.

물론 목적이 있었다. 수양관, 기도원이 나의 기도 제목이었다. 그래서 "승리의 집"으로 이름을 정했다.

성령의 역사는 강했고 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담대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라고 위로했다. 물론 사탄의 방해도 강했다.

이곳의 11월의 날씨는 매서웠다. 얼음이 얼었고 눈도 내리고, 바람은 우리가족이 살고있는 trailer home을 강도 7.0 이상의 지진이 오는 양 매일매일 흔들어버렸다. 그리고 Heater도 없었고 문화혜택이 전혀 없었던 곳에서 우리는 거의 매일 잠을 설쳤다. 가장으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도 불만을 토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사랑하는 8살 짜리 막내딸을 건들기 시작하였다. 1998년12월10일경 아침 진주의 몸 오른쪽 전체가 마비된 것이었다. 웃는 모습, 걸음걸이, 모든 행동은 완전히 중풍에 걸린 것과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다.

Antelope Valley Hospital에서 6일간의 입원, 8살의 아이로서는 감당 할 수 없는 많은 검사들, 그러나 아무런 결과, 진척도 없이 UCLA 병원으로 옮겨 7일간의 투병생활이 시작 되었다. 물론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고 있었다.

유명한 많은 의학박사들이 와서 진주를 진찰하였지만, 모두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검사를 통해서 좋지 않은 것들이 발견되어서 두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할 때마다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타났던 것들이 사라져 버려 의사들을 당혹케 하기를 매시간 매시간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은 매분, 매초마다 느낄 수 있었고, 비록 사탄이 우리의 계획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늘 다윗의 물 맷돌을 생각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비록 적은 물 맷돌이지만 골리앗을 넘겨 버렸던 물 맷돌 말이다.

1998년12월31일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1999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곳, 승리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믿음으로 진주를 퇴원시켰다.

1999년 첫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가정과 승리 수양관의 Motto는 "무조건 감사하는 해, 성취하는 해"가 되는 것

이었다.

우리의 기도는 쉬지 않았고 또 수양관의 계획도 멈추지 않았으며 또한 우리의 감사도 멈출 수 가 없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욥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진주의 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탄은 두손을 들어 버렸다. 진주의 완치와 더불어 믿음의 성도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의 예배, 기도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되었다.

1999년7월,8월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할 수있도록 하셨고 집회를 통해서 지금 이곳 새로운 곳으로 1999년9월20일 옮겨 주셨고, 이곳의 이름은 승리의 집에서 승리케 하신 주님께 열매를 돌려 드리는 "The Vine, 겟세마네 기도원"으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로 2000년이 되기 전에 성전 감사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했고 1999년 12월12일 하나님께 성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 때마다 공급하시어서 지금은 공동식당, 친교실, 다섯 개의 cabin 이 완성되었다.
승리는 결국 우리의 것이었다. 비록 어떤 사탄의 방해와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이 글이 사탄의 방해와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는 성도들과 부름을 받고 훈련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과, 아니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김경례 (M.Div.)

누군가 "인생의 척도는 얼마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기여했느냐"라고 했다. 살아온 시간들이 길다고 해서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을 일구었으며 상대적으로 짧다고 해서 그 가치가 감소한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2-3살 짜리가 9-10살의 형이나 오빠가 아는 것만큼 안다고 할 수 없으며 1-2살의 동생이 7-8살의 누나나 언니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옛 속담처럼 "구관이 명관이야" 하고 무조건 오래된 것이 그리고 년 수가 긴 것이 자랑이라고 어찌 고집하겠는가? 지내온 시간들이 의미 없이 밥그릇 수만 늘게 했다면 말이다. 단지 우리는 바로 앞에서의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라는 고백만 있을 것이다.

우리보다 오랜 시간들을 이 땅에서 보내신 우리의 선배님들은 훌륭하셨다. 그리고 훌륭하시다. 후배들이여! 그분들의 헌신을 따를 수 있겠는가? 그분들의 눈물을 보았는가? 고통과 환난중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았던 그분들의 간증을 알고 있는가? 그분들의 끈끈한 정을 그대들은 느낄 수 있는가? 그분들의 과묵함을 흉내낼 수 있겠는가? 그분들의 영혼사랑을 그리고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선배님들의 한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 또 한 손에는 국거리 또는 밥솥이 들려져 있었다. 그래도 그분들은 그게 즐거웠다. 단지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학우들을 더 섬길 수 있을까? 였다. 이러한 섬김이 밑거름이 되어서 멕시코와 남미 그리고 중국과 기타 각자의 처소와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순교의 정신으로 먹이고 그리고 치고 있는 것이다.

후배들이여 선배님들이 침묵을 즐긴다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분들은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가슴에 무슨 아픔이 있는지 알았고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 제단 앞에 엎드려 흘리셨던 눈물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쵸코렛 같은 달콤한 맛은 없어도 된장 찌개 같은 구수함이 있었고 악과 죄에 대해서는 예외였지만 "no"라고 말하시기를 주저하신 것을 문화차이? 또는 세대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고민하던 선배님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후배들이여! 그대들의 선배님들은 이렇게 외치고 싶으실 것이다. "We Love You in Christ! 그대들의 순수함을 사랑하노라! 그대들의 밝은 웃음소리를 기뻐하노라! 그대들의 열정을 부러워하노라! 그대들의 새로움에 대한 추구와 변화를 격려하노라!"라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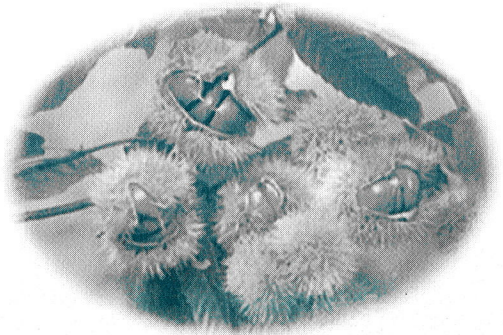
선배님들은 월드미션을 20년쯤은 젊게 만든 후배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 쳐주시고 그들의 찬양소리에 함께 '아멘' 해 주시고 겉만 보시고 평가하시는 오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순수함을 우리 모두는 닮아 가야하며 혹시 모르고 실수하거든 인자함으로 자비로움으로 충고해 주시고 알고도 행하는 허물이 있거든 한눈일랑 질끈 감아 주셔야만 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모세 앞에서 감히 자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다. 갑절의 영감을 받고 엘이야보다 더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가 목에 힘을 주지는 않았다. 엘리야가 병들고 쇠하여 그의 사역을 마감한 것은 아니다.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리운 자는 오직 한 사람인 것이다. 모세나 엘리야를 데려가신 분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와 엘리사를 세우신 분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선배가 훌륭해도, 후배가 참신해도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일 것이다. 우리는 항상 배우려는 부지런함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으로 부터 우리는 배워야 하며 선배는 후배에게, 후배는 선배로부터 서로간에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크로스웨이 성경연구를 할 때 양 쪽 절벽을 연결해 주는 십자가를 기억한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 갈 수 있는 것도 신바가요 다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였다. 선배와 후배사이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며 각 사람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켈리포니아산 삼나무는 오래된 것은 무려 130m나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의아한 것은 길이에 비해 뿌리가 현저하게 얕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유지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 나무들은 서로 뿌리가 엉키어서 서로를 지탱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심기어진 나무들로서 선배는 후배를, 후배는 선배를 서로 끌어주며 밀어주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우리모두는 이렇게 섬김과 사랑과 기도와 겸손과 승리의 횃불을 선배는 후배에게 그리고 후배는 또 다른 후배에게 남겨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와 엘이야가 떠난 후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엘리사가 떠난 후에 여전히 세계를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이다.

비가와도 소풍은 간다

안용균 (B.A.)

초등학교 때의 일이다. 매 년 봄 가을이면 소풍을 간다. 주변의 산과 들로 명승지로 가는 소풍은 언제나 신나고 기다려지는 행사였다. 소풍 날이 발표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들떠지고 기대에 차게 된다. 그런데 어느 해 소풍 때에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되었다. 그런 다음부터 소풍 때면 더욱 조바심이 났다.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도 같은 날에 소풍을 가게 되면 아이들은 서로 상대 학교 때문에 비가 올지 모른다는 식으로 자기들의 불안을 위로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소풍을 못가고 죽은 귀신 때문에 비가 왔고, 올 것이라는 식의 해괴한 루머도 떠돌게 되었다. 사태가 이 지경이니 소풍 시즌이면 학교 전체가 뒤숭숭해지고 학업 분위기는 엉망이 되곤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소풍 날짜를 미리 발표하지 않고 이삼일 전에 갑자기 발표하는 깜짝극을 연출하기도 했었다. 그러자 그 이삼일은 더욱 난리가 났다. 또한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들에게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아무튼 소풍 어간이면 비로 인해 소풍이 연기 내지는 취소되었던 기억 때문인지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그러던 어느 해, 학교에서 재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비가와도 소풍은 간다."는 것이었다. 아! 그것은 복음이었다. 아이들의 동요는 한결 수그러졌다. 비가 와도 교실에서 소풍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소풍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을 이긴 것이다. 정말 그 해는 비가 와서 교실에서 소풍을 보냈다. 나는 그 소풍 전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식구들이 비가 와서 소풍이 취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나를 골려주며 안됐다고 위로할 때에도 나는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 비가와도 소풍은 가기 때문이었다. 평소에는 식사기도도 잊기 일쑤였는데 소풍 전에는 엘리야처럼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나는 "비가와도 소풍은 간다"는 결정이 있었던 해에는 전처럼 기도하지도 않았었다. 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 처음 신입생으로 환영을 받는 자리에서 그 어릴적 소풍이 생각났다. 십수 년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지냈던 나, 공부에만 전념해도 가능할까 말까한 상황인데 낮에는 일을 해야만 하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들이 어떻게 감당될지 걱정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있는 나에게 그 비올 때 교실에서 보냈던 소풍의 기억이 나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왔다. 그래, "비가와도 소풍은 간다"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생길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인도하셨다면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교실에서라도 소풍을 갈 것이다.

한 학기를 잘 마치고 이제 두 학기를 하고 있다.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어 엉엉 울고 싶을 때도 있다. 그럴때면 나는 어릴 때 소풍을 떠올린다. 어떻게 가는 소풍인데 이 정도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다짐이 새로워진다. 그렇다. 나는 시작된 나의 소풍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최선을 다해 즐길 것이다. 어쩌면 이 소풍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풍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김남준 저

김승희 (M.A.)

이 책의 주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예배야말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배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각 장마다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요점을 살펴보면 첫째, 서문에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를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교인만이 어두운 세상을 불꽃처럼 살아갈 수 있다. 둘째, 어느 소년의 고백에서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을 산다 일주일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설교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며 거룩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셋째, 예배 견디기에서 성령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깨달음도 없고 치유도 없으며 진정한 참회와 사죄의 확신도 있을 수 없다.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감화를 받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넷째, 이상한 제육볶음에서 진리의 회복 없이는 예배가 회복된 적이 없다. 교인들이 예배 속에서 정직한 복음 선포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는 설교회복을 통해서만 예배는 비로소 예배답게 될 수 있다. 다섯째, 들어야 할 목소리에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것을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유이다. 진정한 예배정신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마련이다. 여섯째, 밤나무의 추억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알 수 있다. 예배시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타는 설교자가 필요하다. 일곱째, 지갑이 회개할 때에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물질은 우리를 위하여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진정한 헌금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참된 예배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여덟째, 어느 사형수의 노래에서 우리는 예배 중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한다. 마지못해 예배하던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격 속에서 경배하고, 단지 노래 부르던 교인들이 영혼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 노래가 찬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홉째, 더 값진 예물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사소한 범죄에도 진노하시지만 가장 악한 죄인들의 통회하는 심령을 차마 멸시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많은 제물보다 하나님의 사죄와 은총을 갈망하는 진실한 심령을 원하신다. 우리는 이런 갈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바친 제사가 열납된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열번째, 웃기는 심포

지움에서 마른땅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에 거룩하고 참된 부흥을 주셔서 주일이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를 예배를 통해 체험하도록 해야한다. 거룩한 주일은 오직 불꽃처럼 드리는 예배로만 가능하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 으로 예배하기보다는 하나의 의무적인 행사에 치우치고 있다고 생각된다. 저자도 이 책에서 지적했듯이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야 할 예배가 견뎌내야만 하는 지겨운 시간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예배에 대한 많은 잘못된 점을 반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잘 정리해주고 있다.

가장 도전을 받은 부분은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때로 훌륭하다는 목사님을 모셔다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명성에 비해 말씀 선포에 실망할 때가 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박한 말로 알기 쉽게 선포하여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말씀 선포자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설교자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에게 매인 사람이다.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하여 너무 인간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면 실제로 중요한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원과 사랑을 등한시하게 될 수도 있다. "진정한 설교자란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거역할 수 없는 소명에 붙잡힌 사람, 의와 공평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저자의 지적에 공감한다.

새롭게 발견한 점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저자도 이 책 속에 '못 말리는 형제' 에서 잘 지적했듯이 자기가 맡은 봉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 설교시간에 조는 것 아닌가? 이와 유사한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주일학교나 점심식사를 맡은 봉사자들이 예배는 드리지 않고 봉사와 헌신만 하면 훌륭한 교인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예배 정신에 중요한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또하나 다른 예로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저자의 지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정신을 다하여 주일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토요일날 늦게까지 영화나 비디오를 보고 주일날 아무 준비 없이 정신없이 나와서 정작 예배시간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지않은가! 저자의 인용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켜 회개와 결단의 계기가 되어야겠다.

이 책의 장점을 말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감각하게 드렸던 예배를 각 장마다 날카롭게 진단하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결단해야 하는지 적절한 예화들을 사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굳이 단점을 지적한다면 예배를 통해 은혜받기 위한 우리의 준비, 즉 매일 성경 묵상과 기도생활에 대한 언급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마지막으로 나의 예배생활을 돌이켜 볼 때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나를 올바른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제1권)

찰스 스펄전 지음

이 해련 (M.Div)

근래에 한국에서 조사된 배우자 직업 선호도를 보게 되면 '목사'라는 직업이 3위권 안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목사'의 직분이 직업으로 불리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질 뿐 아니라 예전에는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고생길로 접어드는 것과 같다는 인식이 팽배했었기 때문에 인기순위에는 들지도 못했었다. 나의 어머니는 오빠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짧지 않은 교회생활을 통하여 한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두 번이나 보셨고 이로 인해 고통 당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이셨다.

한국 목회자의 지위 향상은 취업이 힘든 한국의 상황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목회환경이 예전에 비해 매우 좋아졌기 때문임을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헌신되어 사역을 자원하는 일과 사역의 상황이 좁았던 이전에 비해 사역들이 많은 분야로 나누어져 폭 넓게 사역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생각하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국 기독교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를 위해 나 자신부터 힘써야 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정확히 말해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물론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일이겠지만 목회자들의 입장은 기독교인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감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 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쉽게 목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어쩌면 위험스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 나는 내가 과연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는가를 끊임없이 되새겨 보고 있다. 이제 졸업을 앞 둔 나에게 남은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급박성을 깨닫게 된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상황, 사면초가인 상황을 느끼게 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 사역을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스펄전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라는 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펄전 목사의 글들을 기억하고자 한다.

목회자가 영적인 고갈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과연 합당하게 행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든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스펄전 목사는 먼저 목회자에게는 자기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이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이단

들이 더 전도에 열성인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의 질문이 '당신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는가?' 로 시작된다.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물쭈물하게 마련인데, 목회자라고 해서 이 질문에 확신에 차서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나 역시도 사역을 잘 하고 있을 경우엔 확신에 차 있다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끊임없이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며, 자신을 성찰하기를 쉬지 않을 때는 그 신앙의 열성으로 사역을 이루어 나간다. 누구보다도 복음 사역에 열정적이어야 한다. 또한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말은 구원받은 사람처럼 하고 행동은 마치 죄인들과 똑같은 습성을 보인다면 그의 말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결코 완벽을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 역시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잘못을 인정할 때도 있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과 같이 어떤 것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하기 힘들 때는 더욱 그렇다. 목회자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시킬 때, 이로 인한 부작용은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목회자의 한번의 실수는 그의 전 생애의 사역을 통해서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노력은 일반 그리스도인과는 틀린 것이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의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목회자의 전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목회자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매순간 찾아오는 의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스펄전 목사는 부르심을 받음의 첫 징조는 그 일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욕망은 거룩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란 자신의 속 영혼이 헉헉거리며 갈망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그 어떤 일에도 싫증을 느끼고 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목회자의 자격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목회자는 가르칠 만한 소양과 그밖에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에게 필요한 다른 자질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타민족의 선교지로 떠나려는 선교사가 먼저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한 정보나 언어에 대한 습득이 우선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선교사역을 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몇몇 목회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다. 그러나 목회자가 먼저 사모해야 할 것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일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다. 호흡이 멈추게 되면 생명이 끊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의 중요성은 매순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역으로 분주하게 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목회자는 자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조용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

또한 목회자는 공중기도를 행할 때가 많으며, 자신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경우가 많다. 이때에 목회자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만이어야 한다. 스펄전 목사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을 기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도는 솟구쳐 올라가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틀로 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목회자는 중보기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여야 한다. 중보기도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교인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하여야 한다. 또한 예배시의 자신의 기도가 너무 길어지거나 중언부언한다면 미리 기도문을 써두어서 읽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예배시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하는 것이므로 쓸데없이 많은 간구는 피하는 것이 좋다.

목회자에게 있어 설교는 큰 핵심을 차지한다. 설교에는 우선 복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요즈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재미있고 흥미로우며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지만 복음은 빠져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설교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물론 설교에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 자신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은혜 받지 않은 말씀은 결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말씀준비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깊은 말씀연구가 필요하다. 원어를 연구하여야 하며, 성경전체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복음주의적인 신학의 토대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함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목회자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야 한다. 사람을 의식하는 행동이나 설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하나님의 높으심을 증명하였던 엘리야는 악한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차라리 하나님께 죽기를 소망하였다.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자 좌절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사역자들에게도 이러한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다가온다. 그럴 때마다 좌절에 순간을 맞이하며 포기할 것인지, 믿음으로 극복할 것인지는 사역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방패가 되실 것이다.

스펄전 목사는 목회자라면 좋은 책을 접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요즈음 옛날과는 달라서 돈이 없기 때문에 책을 사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가 되지 못한다. 어떤 목사님은 뻔한 가족의 생활비에서 책을 살 비용은 항상 따로 떼어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러한 작은 희생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책을 살 수 있으며, 도서관 같은 곳을 이용하는 것도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목회자 자신을 위해 많은 보고, 듣고, 배워야 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는 교인들을 통해서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으며 배울 수 있다.

특히 목회자는 언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한다. 가끔씩 눈살을 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마치 온 교회가 자신의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크게 떠들고 소란하다. 또한 목사라는 것을 일부러 나타내며 온갖 서비스를 다 받으려 한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인들에게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 그 동안 대접을 받기에 익숙해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목회자라는 직분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대접받고자 하는 근성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이며, 언어를 신중히 사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훈련도 해야 할 것이다.

스펄전 목사의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임에

는 분명하다. 그는 목회자의 영적인 면에서의 준비에서부터 실제적인 면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좋은 예화와 금언들을 기록함으로 참된 목회자의 상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다. 이 겸손함은 비굴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함이다. 내가 이 책을 통하여 느끼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 나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매순간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점검하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어리석음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에 나 역시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것뿐이다. 사역자로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단지 내 가슴에 명찰을 하나 덧붙이는 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함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스펄전의 책을 읽으면서 목회자란 완벽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다. 그만큼 그 직분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 동안 목회자의 직분은 남자에게만 주어졌었다. 그러나 여성의 안수 문제가 거론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여성에 안수를 주는 교단도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서의 목회자의 자질 문제도 당연히 거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한 안목을 가지고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자주 구설수에 오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나는 이 책을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한번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니, 여러 번 다독을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나 역시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실제적인 단기 선교를 위하여

김대준 (M.Div)

1. 서론

일반적으로 단기 선교를 통칭할 때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의 기간 동안 타 문화권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 선교의 사역 기간과 형태는 다양한데, 환경과 조건에 따라 사역의 영역과 방법도 다르다. 따라서 사역자들의 유형과 사역의 기준이 워낙 다양하며, 구성되는 팀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단기 선교 활동은 서구교회를 중심으로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헌신된 자원들이 선교지를 지원하고, 선교를 학습하는 목적 외에 교회를 동원하는 선교의 동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는 90년대 초부터, 선교단체가 주도하여,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대학생 및 전문인들이 단기선교 사역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90년대 중반부터는 교회를 중심으로 전문인과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세계 각 지역의 선교지를 향하여 뻗어나갔던 것이다. 이처럼 단기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물론 선교 단체, 봉사자 자신과 선교현지, 파송교회 모두에게, 선교에 대한 많은 유익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훈련으로 준비한 단기 선교팀이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팀의 사역은 역할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로 드러났다. 단기 선교에 임하는 구성원들이 단기 선교의 중요성과 목적, 역할, 효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선교 발전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바른 단기 선교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A) 동기와 배경

오늘날은 수많은 교회가 선교 사역을 행하고 있으며, 각 교회가 감당하는 선교사역이 다양하므로 교회들이 감당하는 선교사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야별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사역을 하도록 방안을 강구 하여야한다. 교회들이 감당하는 선교와 전도의 개념차이는 간단하게 표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을 전도사역이라고 한다. 선교는 전도사역을 지역과 문화를 초월하여 타민족에게 시행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다. 성도와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행하는 전도 사역은 결과적으로 선교로 발전하여야 하며, 선교 사역은 시대적인 변천을 따라 점차 다양한 방법과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행하게 된다.

선교사역 중에는 다양한 사역의 형태를 꼽을 수 있으나, 그 중에 단기 선교 사역은 직접적인 사역의 참여자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 중에서 장기 사역자로 헌신하는 비중이 높이 나타나며, 교회의 선교 동원은 물론, 선교지의 사역의 효과를 높이는 등 좋은 결실을 가져오고 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좋은 동기와 결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이 부족하여, 장점을 부각시키지 못하므로, 선교하는 교회에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간

혹 있다.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역자는 물론 동역을 하는 선교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기 선교가 교회와 선교 단체에서 바르게 정착하고, 지속적이며 실제적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 열기를 냉각시키거나, 단회적 행사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선교 단체의 건강하며 효과적인 단기 선교를 위한 연구와 노력은 반듯이 필요한 것이다

B) 목적과 주제

단기 선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장 중심의 선교 경험을 배우고 숙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험으로 말미암는 부족함은 보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 선교 지도자들이 선교 현장을 이해하고 동역 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과 효과적인 동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효과적이며, 도전적인 선교사역의 모델을 고찰하면, 단기 선교를 통한 창의적인 복음사역의 전개와 함께 선교 현지의 다양한 필요를 공급하는 것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성경적인 모델을 바르게 배워 사역하는 방법이 효과적 결실을 위한 선교 사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공적인 단기선교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정립과 연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단기 선교의 성경적 모델을 신구약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명하고, 역사적으로 행하여진 단기 선교의 사례를 연구함으로 미래의 사역을 타진하여야 한다. 특히 교회와 선교 단체의 단기 선교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고찰하여 사역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단기 선교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비교 평가하며, 단기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그리고 실제적인 연구를 통하여 지역교회와 선교사가 단기 선교를 통하여 바른 선교에 동참하도록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기 선교의 활성화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구약의 단기 선교의 모델

구약 성경의 전반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열방의 선교를 위한 위대한 역사이다. 에덴에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신 문화명령(창1:28)은 곧, 선교를 명령하신 말씀인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많은 내용이 선교 사역으로 조명되어 기록되었다. 내용가운데 특별히 단기 선교사역은 수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모델을 찾는다면, 출애굽을 지도하는 모세와 정탐 선교를 떠난, 갈렙과 여호수아(민13장)를 들 수 있을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을 가장 확실하게 수행하고 보고한 단기 사역자들이다. 또한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벧후 2:5)와 복의 근원으로 모든 족속의 믿음의 아비 가된 아브라함(창12:3), 그리고 왕 앞에서도 당당히 꾸짖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삼상 15:22, 23),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렘 38:17-23),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아모스(암 7:14, 15), 니느웨로 가서 하룻길을 행하며 전도한 요나(욘 3:2;마 12:41)를 찾을 수 있다.

3. 신약의 단기 선교의 모델

신약 시대의 선교사역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은사와 능력을 따라 감당하되 협력을 통하여 이뤄가도록 되어있다. 연합과 협력을 통한 선교는 보다 전문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며, 다양한 전문분야를 요구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이며 신속한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선교 사역을 은사와 능력별 분담을 기초로 모든 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연합과 협력을 통하여 선교를 이루어 가도록 지도하신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사역은 복음서와 초대교회의 선교 사역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은 가장 성경적인 동시에, 효과적인 선교를 배울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이 사역의 특징중 가장 중요한 내용중 하나는 모든 사역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기선교의 형태를 따른 지역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 예수님

"인자의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함이니라"(눅19:10)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 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마9:35).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은 갈릴리를 시작으로 모든 곳에 두루 다니시며 행하시는 순회사역이 중심이셨다.

이것은 오늘날의 단기 선교의 형태로 해석하여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성장기를 제외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는 특정한 곳에 거처를 두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중에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가나안 혼인 잔치는 물론 이지만, 거의 모든 사역이 갈릴리와 가버나움 지역 등 여러 지역에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진행 하셨다. 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산이나 들에서 사역을 감당 하셨고, 자신의 기도를 위하여 한적한 산을 이용하신다. 그 뿐아니라 당시의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전도하고, 여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단기 선교의 좋은 사례를 실제적으로 지도하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회당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여러 지역을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는데, 계속적인 사역을 위하여, 제자를 세우시고, 훈련시켜서 파송하시었다. 말씀 사역과 봉사에 해당하는 치유 사역의 병행을 제자훈련과 동시에 입체적으로 시행하시어, 자신 뿐 아니라 선교 사역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며, 각색병을 고치심은 소외 받고 어두움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당시의 모든 계층과 지역이 사역의 대상이었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가르치신 것은 선교 사역을 위임할 후임들을 양성하시는 제자훈련이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28:19-20) 예수께서는 친히 복음사역의 모델이 되어 주셨고, 그 사역의 내용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고치시는 것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으로 다니시며, 단기 선교의 형태로 진행하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이

며, 오늘날 선교 사역에 적용하고 있는 단기 선교 사역 방법이다.

B) 바울

위대한 전도자이며 선교사인 바울의 선교 여행은 단기 순회 선교 사역의 극치를 보여준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직후부터 주님의 선교사역에 헌신되어진다. 일정기간의 준비를 마치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동역을 하며 본격적인 단기 순회 선교를 하게되었는데, 대부분 이방 지역에서 행하여진 이 단기 순회 사역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것은 초대 교회의 선교 사역이 힘있게 진행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바울의 단기 순회 사역의 결과를 증거한 것이었다.

바울의 순회 사역은 단기 선교로 이뤄지는데, 제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바나바와 동역하며 선교를 시작한다.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 구브로 섬과 소아시아,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버가와 앗달리아 지역을 다니며 전도 사역(행 13:4-14:26)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많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게 된다. 계속되는 제2차 선교 여행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행 16:12-18:22)하는 선교사역으로서 이 때도 중요한 교회 개척과 말씀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하였다. 제3차 선교 여행은 갈라디아와 부루기아 방문 그리고 3년간의 에베소사역, 마게도냐와 헬라, 고린도, 드로아, 밀레도의 전도 사역, 두로, 가이사랴 방문(행 18:23-21:8)으로 행하여졌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연구하면 여러 가지 특징을 발견 할 수 있다. 특별히 에베소의 3년간의 사역을 제외하면, 바울이 선교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각 방문지의 체류기간이 단기간이었음으로 수많은 지역을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였으며, 많은 동역자들을 일으키고, 다양한 제자들을 훈련하였다. 바울의 사역은 단기 사역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사역 방법의 모델을 제시한다.

바울의 단기 사역은 신약시대는 물론이지만 오늘날의 선교사역에도 위대한 모델이며, 도전인 것이다. 바울이 이방 선교에 헌신 한 것은 오늘날의 미전도 종족과 창의적 접근 지역의 선교에 해당하는 사역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순종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선교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결과를 가져왔다. 당시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결실을 맺는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그의 단기 순회사역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의 선교사역이 단기 선교로 진행되었지만 철저한 현지 교회 중심의 선교로서 그가 방문하는 모든 지역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현지 중심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동역을 하여 선교를 하였다. 협력 사역을 통하여 선교 지역을 확장하고, 연속적인 사역을 시행하였다. 바울 자신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로마를 거쳐 스페인 지역의 선교의 비전을 품고 계속적인 단기 순회사역을 할 수 있었다.

4. 단기 선교의 중요성

모든 교회와 단체들은 사회의 변혁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자세와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 복음을 제한하는 영적 전쟁 지역이 날로 증가하며, 이미 복음이 전하여진 국가들의 영적인 피폐화는 복음을 받아들여도 진보가 없고, 사이비등 각종 이단 사교들의 대적으로 선교사역에 방해를 받고 있다. 특히 회교권과 공산권은 기독교 선교에 대한 강한 거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접근과 효율적 사역감당이 요구되는 것이다. 교회의 선교와 선교사들의 사역도 이러한 시대적인 요구와 환경으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 교회와 단체로 하여금 새로운 선교의 형태를 창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단기 선교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중요한 위치를 구성을 하고있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의 구분, 필요성, 장단점, 그리고 준비과정을 중요시한다.

A) 단기 선교의 구분

선교 전략 차원에서 단기 선교와 장기 선교를 구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교사역의 기간과 거주 및 형태에 따라 장기 선교사와 비거주 선교사 그리고 단기 사역자(선교사)로 구분하는 것이 선교 사역의 전문화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다. 서구 선교 단체는 선교지의 사정으로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사역을 하는 선교사를 비거주 선교사(Nonresidential Missionary)라고 하며, 비정기적인 방문이나 단기간(3년 이하) 선교 사역자를 단기 사역자(Short Termers)로 분류한다. 그리고 1-3개월간 사역을 할 때는 특별 단기 사역자(Special Short Termers)라 한다. 일반적인 단기 선교의 개념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선교팀이나 개인이 선교지 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말한다. 단기 선교의 영역에는 미전도 지역의 정탐 사역, 창의적 접근 지역의 복음 전도에 관한 여러 사역, 장기 사역자를 돕는 지역 활동등 다양한 사역이 있다. 단기 선교의 기간에 대한 정의는 선교 기관의 견해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3개월에서 3년의 기간을 단기 선교로 구분한다. 그러나 선교기관의 안식년 기준이 4년인 점을 감안하면, 짧게는 6개월에서 2년의 기간을 단기 선교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비전 트립(Vision Trip)

교회와 선교 단체가 전문인과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하는 선교 여행이나, 비전트립(Vision Trip)과 정탐 여행은 단기 선교와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단기간 사역을 "단기 선교 혹은 단기 선교사"라고 호칭하면 장기 선교사와 구분이 모호하고, 장기 선교사의 헌신과 위치를 격하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 전략적으로 혼돈과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선교에 참여하는 형태를 따라 선교 여행, 비전트립, 정탐여행, 선교 훈련 등의 적절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사역은 선교지 와 참여자의 조건에 따라 1주일에서 2개월의 기간 동안 단체 혹은 개인이 활동한다. 사역의 내용은 대게 선교지의 방문 지역을 연구하고, 현지에서 전도, 봉사, 구호, 의료, 교육, 건축, 기도, 기타 복음 사역 등을 감당한다.

C) 단기 선교의 필요성

현대 교회의 선교는 현장에 동참하고, 은사와 역할에 따라 실제적인 동역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먼저는 교회와 선교의 연결을 통한 일체감을 가지므로, 선교현지에 필요한 모든 영역의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기도와 인적 물적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선교에 직접적인 참여를 하는 것은 교회의 영적 부흥과 직결된다. 기성세대들의 참여는 물론이지만, 보고 배우는 세대인 청소년들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선교의 훌륭한 자원화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의 영적 부흥은 단기 선교를 통하여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

a. 단기 선교는 선교 자원의 전문화를 이룰 수 있다. 선교 사역은 여러 방면의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많은 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선교 사역의 역할 분담이 점차 세분화되는 추세에 따라 전문 분야의 사역자를 선교에 동원하는 단기 선교의 필요성은 너무나 절실한 것이다. 기상의 변화로 재난이 나거나, 전쟁, 기아, 전염병 등의 상황은 선교의 접촉점으로서, 단기 선교의 전문성과 기동성을 살려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을 기초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다면, 적재 적소에서 효과적인 사역을 하게 된다.

b.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가 사역할 수 없는 제한 지역에서 단기 집중 사역이 가능하다. 선교사 입국이 어려운 지역에는 선교사의 신분보다, 전문인 신분이 용이한 접촉을 할 수 있다. 비자취득이 어려운 지역과, 정탐이 요구되는 지역에 필요한 정보를 전문인들이 제공하는 선교의 동역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인 협력 선교의 요청인 것이다.

c. 교회에서는 선교지의 필요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후원하여야 한다. 교회는 선교 분위기와 성도들의 헌신을 고취하여 전반적인 영적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단기 선교는 현지의 요구에 따라 선교 인력의 전문화, 협력하는 사역의 개발, 그리고 창의적인 선교 사역의 개발 차원에서 필요성이 요구된다. 특히 창의적인 선교를 위한 단기 선교의 기여는, 단기 사역자들은 장기 선교사가 겪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을 뿐아니라, 단기 사역을 통한 사역자들의 장기 선교 헌신으로, 기동성과 전문성이 확보된다.

5. 단기 선교의 발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선교의 자각과 함께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는 실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발전하였다. 세계는 경제와 교통의 발전에 따라 해외여행이 많아지고, 정보도 고도로 발전하여 모든 지역의 복음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행이 자유로운 지역의 교회와 휴가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지를 방문하여 직접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추세로 선교의 변화를 가져온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미전도 종족의 단기 선교와 창의적 접근 지역의 단기 선교의 우월성과 효과가 강조되면서 선교 단체는 물론 교회에서 앞다투어 전문인들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선교지에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학생 선교회(U, B, F)의 경우만 1998년 한해 동안 3,000명 이상의 대학생을 단기 선교로 파송하였다.

A) 단기 선교의 목표

단기 선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세상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는 기회다.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현지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접하므로 선교에 대한 실제를 경험하고, 자신이 감당할 선교의 목표를 관심 해야 한다. 이것은 단기 선교의 참여자에게 없어서는 안될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a.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성장을 한다. 선교지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다. 세상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헌신된 선교사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듣게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선교사와 그 가족들이 삶을 드리며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참여자의 관심은 역사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인하고, 현지인들과 선교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단기 선교를 통하여 자신의 영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b.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지역교회와 내 민족위주에서 타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며, 타민족을 섬기는 선교지의 사역을 동참함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세상의 모든 종족을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단기 선교를 통해 깨닫고, 선교지의 영혼을 사랑하고, 문화를 존중하며,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야 하는 것이다.

c. 사역을 통하여 섬기는 자세를 배운다. 단기 선교 사역은 공동의 사역이므로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는 사역 정신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이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힘들어 할 수 있으므로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팀 사역 정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자신을 희생하며, 상대를 섬길 때 단기 선교의 참여 목적이 성취된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누면 진정한 섬김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

d. 선교의 동원자가 된다. 선교를 참여하고 경험한 사람들의 직무중의 하나가 선교의 동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선교지에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과 교회와 단체의 자원들을 선교에 협력하게 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선교지의 필요에 대한 부담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전하여 해결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보고와 간증을 통하여 교회에 선교의 열을 전하여야 한다.

e. 장기 선교사역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는다. 단기 선교에 임하는 모든 성도는 장기 선교의 부담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여야 한다.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고,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해야 집중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역자들은 물론 선교를 생각하고 관심 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역을 통하여 기도와 상담으로 장기 사역의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B) 단기 선교의 준비

복음 전도에 있어서 선교 사역은 종합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단기 선교의 성공여부는 선교지와, 지역 교회, 그리고 참여자들의 전문적인 사역의 기술과 팀사역이 관건이 된다. 선교에 헌신된 자원들이 교회와 단체의 선교 계획과 행정을 기본으로 하여, 단기 선교에 관한 전문적인 훈련이 중요하다. 자원들의 준비는 개인 적으로 구원의 확신은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 특히 주님의 지상명령에 전적인 동의가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맡은 본분을 감당하려는 적극적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기도와 믿음으로 지혜롭게 사역하며 팀웍을 살리며 섬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을 겸손케 하여 사역이 되도록 팀을 위한 사역을 하게된다.

a. 단기 선교는 사역의 준비로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거나 개발하여야 한다. 복음전도와 현지에 필요한 기능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선교의 참여자는 물론 현지의 선교 대상자들의 접촉점을 확보 해주고, 열매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를 통한 사역의 배치는 광범위한 선교 사역에 중복하여 투자하는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비책이

되는 동시에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온다.

b.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준비해야 한다. 제자훈련과 지도자 배양을 위한 교수를 위한 전문 인력, 보건 위생 질병 등의 도움을 위한 의료 전문 인력, 구호 구제 재건을 위한 전문인력 등을 세분화 할 수 있다. 전문 직종을 세분화하면, 자녀교육, 행정가, 컴퓨터, 건축가, 토목과, 목공, 재봉사, 상업 디자이너, 전공 교수, 개발요원, 음악 지도, 농업 기술, 미용사, 전기기술, 태권도와 운동 전문가 등 수 많은 전문 분야의 참여가 가능하다.

c. 교회와 단체는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훈련하여 동원하는 체계를 준비하여야 한다. 개 교회에서 이러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동원, 그리고 사역의 준비와 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 선교 전문 단체와 협력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 단기 선교의 구체적인 방법의 시행이 필요하다. 단기 선교 학교의 훈련을 통하여 선교팀의 구성 방법이 숙지되어야 하며, 단기 선교 계획이 교회와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석자 개인에게는 후원자를 모으는 방법과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하되 기도요청을 함께 보내도록 한다.

C) 긍정적인면

현대 선교의 특징은 단기 선교의 놀라운 증가인데 헤셀그레이브(Hesselgrave,1988)에 따르면, 1985년 통계에 북미 선교사의 42%이상이 단기 선교 사역자이며, 20세기말에는 단기 사역자들이 장기 사역자의 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선교의 형태가 변화하는 것을 밝혀 주지만 중요한 것은 단기 선교를 통한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이다. 이처럼, 많은 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단기 선교의 장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a. 모든 선교지에 사역의 참여가 가능하다. 단기 선교는 어느 선교지나 동역을 필요로 하는 곳에 참여가 용이하다. 장기 사역의 부담이 없이 누구나 쉽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지의 상황에 따라 전문인은 물론 단순 봉사자에 이르기까지 남녀 노소 그리스도인들이 단기간을 이용하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성도들의 선교적 사명감을 고취하며 헌신케 한다. 선교지의 참여와 후원은 하나님의 역 사를 직 간접으로 경험하게 되고, 특히 동료 성도들의 간증과 도전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와 성경공부 이상의 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다. 단기 선교의 영향은 보내는 자로서 동역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나가서 장기 사역 헌신자를 만들 수 있다.

c. 선교로 참여하는 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부흥이다. 교회와 단체의 선교열기의 고조로 기도와 헌금은 물론 영적 생활의 전반적인 활력을 얻게된다. 단기 선교 참여의 증가는 교회와 단체의 선교 참여의 형태의 긍정적인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보내는 선교에서 참여하는 역동적인 사역이 되므로 각 기관과 개인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d. 선교 인력의 전문화와 정예화로 선교 현장의 필요를 충족한다. 선교지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단기 선교로 헌신하고 준비된 자원, 즉 훈련된 전문인들을 먼저 배치하게 되면, 선교의 효과가 배가가 되는 것이다. 단기 선교에 참여한 자원들이 교회와 단체에서도 사역자화가 된다.

e. 단기 선교의 보이지 않는 영향은 많다. 교회의 선교사역의 역동적인 주체가 되므로, 온 교회와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하

는 것 뿐 아니라 신앙 생활의 감동과 보람을 갖게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단기 선교를 통하여 얻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는 매우 많지만, 특별히 선교지는 물론 교회와 단체와 개인들에 영 육간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긍정적 요소는 보이지 않게 영향을 기치는 영적이며, 질적, 양적, 역동성 있는 활력이다. 이러한 단기 선교 사역의 기회가 많은 교회와 개인들에게 열려지게 되는 것은 복음사역의 효과적인 동참이며, 현대 교회가 지향하는 전 성도의 사역자 화가 되는 것이다.

D) 부정적인 면

단기 선교의 부정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로 선교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단기 선교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a. 준비와 훈련의 부족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를 유발한다. 현지에 필요한 철저한 준비와 사전 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선교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부담이 된다. 예를 들면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보안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현지 문화를 모르거나 이해하지 않으려는 모습 등 여러 사례가 있다.

b. 현지 선교사들이 관심과 협조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 단기 선교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특별히 준비되지 못한 단기 선교 팀으로 인하여 사역에 차질을 빚거나, 선교사를 오해하여 비난 당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선교지를 여행과 사업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고생을 당한 선교사들의 경우에 자연히 단기 선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

c. 리더의 지도력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경우가 있다. 선교에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인데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선교의 형식을 남용하여 선교지를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충분한 사전 지식이나 준비의 부족으로, 선교지를 단순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d. 과다한 참여 인원과 규모 없는 진행으로 선교 자금의 손실을 가져온다. 규모 없는 단기사역의 운영은 현장감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도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많은 낭비를 하게된다. 일부 교회의 경우, 다른 교회를 의식하여 습관적인 행사와 같이 분명한 목표와 훈련이 없이 무작정 출발하는 경우도 있다. 선교를 통하여 업적을 기대하는 선교지 방문의 경우에 나타나는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

e. 선교의 참여자들이 현지를 무시하거나 무조건 지도하려는 경우도 있다.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교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못하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에서 보는 시각 차이로 지도하고 싶은 것이다. 현지의 전통과 고유의 문화를, 무시하는 경우 선교가 제한을 당한다.

f. 선교지의 선교 상황을 단적으로 보고 교회와 단체들에게 오도하는 경우도 있다. 단기 선교를 통한 부정적인 결과는 선교를 단순한 행사로 보는 것과, 현지를 직관만 가지고 판단하여 객관성이 없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선교지를 자신의 선교 개념으로 주도하려는 오류, 선교 사역을 부정적으로 보면 단기 사역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으로서의 단기 선교를 부정적인 결과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는 먼저 선교에 대한 성경적이며, 역사적인 고찰이 중요하다. 선교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그 대적들의 방해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모든 시대를 통해 역사 하신 하나님의 선교는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사람들인 한계로 인하여 사역 초기

에 시행착오를 거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사역을 감당하였다. 단기 선교는 신구약을 통하여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사역의 방법이다. 비록 제한 적인 사람들의 시행착오로 문제점을 제기 하고 부정적인 지적을 받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와 경험자들에 의한 준비와 훈련을 거치면, 문제점을 깨닫게 될 것이고, 교회와 단체는 물론 현지의 선교사들이 단기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력을 기울이면 모든 선교지에 도움을 끼치는 시대적으로 쓰임 받는 단기 선교를 감당하게 될 줄로 확신한다.

E) 단기 선교의 실제

중국에서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2-4팀씩으로 구성된 약 300여명의 단기 선교팀과 동역 하였던 경험이 있다. 간접적으로 동역 하거나 강의를 한 단기 선교팀을 꼽으면 훨씬 많은 수의 단기 팀들과 동역을 하였던 것이다. 중국에서 동역 한 단기 선교의 사역은 주로 리서치와 비전 트립 그리고 의료사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지역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역의 결과로 중국과 북한 변경의 몇 교회와 서북 산서, 내몽고의 일부, 미전도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기존 교회들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여 지역 교회의 부흥을 위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례가 있다. 단기 선교의 장점을 살린 중요한 사역이 중국과 북한 변경, 그리고 서북부 일부지역에서 좋은 결실을 얻었다.

a. 단기 리서치 팀은 내몽고를 중심으로 수도와 농촌 지역에 복음화 현황과 접촉점을 찾기 위하여 여러 차례 정탐 사역을 하였다. 도시에서는 삼자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의 상황을 알기 위하여 수 차례 정탐을 하였고, 농촌과 변두리 지역에서는 소수민족과 타종교의 분포도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스도인 성도를 찾을 경우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접촉점을 찾아, 새로운 지역을 조사하여 필요한 자료를 파일화 하여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교회와 단체들과 공유를 하였다.

b. 비전 트립을 하는 단기 선교팀들은, 북한과 중국 변경의 여러 지역에서 교회 개척의 상황과 북한 선교의 실제를 확인하고, 협력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일부 소수민족집성촌에 다니며, 지역과 문화와 선교의 상황을 알게 하고, 기도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차기 사역의 방안을 연구 토론하였다.

c. 단기 의료 사역은 교회 개척을 위하여, 지역교회 전도를 위하여 쓰임 받는다. 농어촌의 오지나, 수해 지역, 탄광촌, 빈민촌 등에서 진료와 구호를 통하여 직 간접적인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였다. 단기 사역 중에 복음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하였다가, 차후에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사역한다.

d. 단기 선교로 주일 학교의 교사 훈련을 한다. 중국의 경우는 18세 미만은 종교 생활을 통제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일 학교 운영은 공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단기 선교 팀을 중심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 대상자들을 훈련하였다.

e. 도시빈민들을 구호하고 전도하는 단기 선교. 중국의 급속한 발전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크게 만들었고 가정의 문제와 실직자 등을 대량으로 만들었고 결과로 수많은 빈민이 발생하였다. 이 곳은 복음을 쉽게 받아드리는 토양이 준비된 곳이고 적은 물질로도 사역이 가능한 곳이므로 단기 선교 팀의 역할이 크게 필요하였고 성과도 좋았다.

중국 선교에서 단기 선교 팀의 모든 사역은 사역의 준비와 경험과 능력, 그리고 여러 기능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다.

단기 사역에 임할 때의 주지 사항은 철저한 보안 유지를 해야 했으며, 항상 정부 기관의 단속 위험에 따른 부담이 따랐다.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이 연합과 협력을 통하여 사역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철저한 주의와 경계를 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선교 팀과 협력 사역을 할 때 부분적으로 준비가 부족하고, 현장을 이해하지 못하여 힘들게 하였던 것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사역자를 호칭할 때 특별히 언어사용에 주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실수를 연발하기도 하였다. 간혹 선교지의 사람들과 문화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표현하는 모습과, 모든 것을 가르치려는 자세, 그리고 섬김을 받는 일에 너무 익숙한 모습을 보고 현지인들과 함께 실망을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단기 선교팀의 헌신적인 사역은 선교지에 좋은 영향을 크게 끼쳤고, 좋은 열매를 맺었다. 단기 선교팀이 선교지에서 돌아간 후에도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일부는 장기 선교사로 준비중이거나 이미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여 자신들의 사역을 교회와 단체를 통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F) 단기 선교 팀의 후속관리

단기 선교의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결실은 후속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단기 선교를 마친 후에는 각 교회별로 보고회와 간증과 평가회를 갖는다. 이러한 행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되는데 교회적으로 선교의 평가와 재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며, 영적으로 성숙하는 계기가 된다.

a. 단기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심에 영광을 올리고 은혜를 나누어야 한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역사 하시는 현장을 경험하며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b. 선교의 열기를 고조시켜 더 많은 선교의 자원을 일으키도록 한다. 단기 선교를 통하여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성도가 도전을 받고, 교회와 단체에는 계속적인 단기 선교의 참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c. 선교지를 위하여 계속 후원한다. 단기 팀은 물론 교회가 선교지의 기도제목을 받아 필요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것과 후원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장기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후원하여 공동의 사역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d. 교회와 단체가 행사 후에 선교 대회를 한다. 단기 선교가 마쳐진 후속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순서는 선교의 동원을 일으키는 것이다. 단기 선교가 마쳐지는 시점에 선교 대회를 개최하고, 자원들에게 장 단기로 재 헌신하게 하며, 헌신자들은 선교사 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단기 선교의 재 헌신을 독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 선교를 통하여 얻어진 신앙의 유익을 도모한다. 단기 선교를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어떻게 동원으로까지 연결 할 것인지를 교육하여야 한다. 참여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나눔을 갖도록 하는 것과 선교지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선교의 경험을 실생활에 적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와 단체가 단기 선교를 마친 후에 후속관리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선교 참여가 중요하다면, 참여한 좋은 자원을 계속 관리하며, 동원하는 것은 교회와 단체는 물론 개인의 유익이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와 단체가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것은 단기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적인 단체가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교회와 단체에서는 선교지의 후원을 조직하는 등 단순한 목적의 행사성 사역이 아닌 점검과 관리와 동원이 뒤따르도

록 하여야 한다. 단기 선교의 후속관리와 동원은 선교지에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에게 조명하며, 그로 말미암아 주변을 동원하여 이 사역에 동역 하는 동시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6. 결론

시대적인 요청인 단기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협력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선교의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선교의 역사를 주도하시기에 이 시대에 필요 적절한 선교 방법으로 사역을 감당해야하는 것이다. 단기 선교 사역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상명령에 겸손한 자세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기 선교를 통한 사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하기에 겸손할 수 있고 충성 되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 선교는 철저하게 선교지 중심이며, 연합과 협력 사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는 것이 선교 사역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음 사역이다.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한 명령이시기 때문이다. 현재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단체와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계 모든 열방, 특히 복음이 전하여 지지 않은 곳이라면 어디나 두루 다니며 단기 선교를 행하여야 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과 능력을 으로 기름 붓듯 하실 것이다.

[단기 선교를 위한 제안]

선교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은 단기 선교 사역에 동원하도록 하여야한다. 동원한 자원들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바른 방법과 기회를 교육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회와 단체가 전문기관을 설립 운영하여, 실제 참여하는 선교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기 선교의 특성을 살리는 운영도 중요한데, 전문인들과 자원들로 하여금 미전도 종족들의 리서치와 선교의 접촉점 확보를 위해 사역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기 선교의 성공적인 사역을 위하여 교회와 단체가 연합과 협력을 통한 사역을 필요로 한다.

a. 해외 이민 교회의 선교 관심자들은 동원하여야 한다. 이 들은 문화와 언어에 적응한 사람들로서 단기 선교 자원의 보고들이다. 이 들을 동원하면 선교지를 이해할 뿐 아니라, 사역에 필요한 기능들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된다. 특히 전문인들을 통한 단기 선교는 선교의 중요한 정보와 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각 방면의 전문인들의 단기 선교 동원 사역은 매우 중요하다.

b. 단기 선교를 위한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다. 전문기관의 역할은 단기 선교를 위한 정보의 교류와 양질의 훈련과 필요 현장에 효과적인 배치를 관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단기 선교가 끝난 후 후속관리를 하여야 한다. 현재 전문적으로 단기 선교 훈련을 시행하는 단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사역에 헌신하는 기관이 설립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필요로 한다.

c. 교회와 선교단체의 단기 선교 프로그램 공유해야 한다. 단기 선교의 경험과 정리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나누며, 협력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많은 시행착오를 대비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중복 사역으로 말미암는 인적자원과 경제

적 자원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단기 선교의 효과를 위하여 중요한 사항은 선교지의 영적 상황과 실제적인 요구에 따른 정보의 교환과 자료의 공유이다.

d. 단기 선교는 미전도 종족 및 전문인 선교를 목표로 해야 한다. 단기 선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정탐사역이다. 참여자들로 하여금 미전도 종족들을 리서치 하도록 하며, 연속적인 활동으로 자료를 보강하여 장기 사역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전문인들의 역할로 장기 사역의 토대를 제공하게 하면 생업과 현장과 선교지를 연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 연합과 협력 사역을 기본으로 사역하여야 한다. 모든 교회와 단체는 하나님의 선교를 겸손히 섬기며 배울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연합과 협력을 통하여 가능하다. 하나님이 주체 시고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사역들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역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하면 현지 선교사들의 선교 상황 파악과 함께 바른 동역을 하며 필요한 후원할 수 있게 된다.

참고 도서

1. 비거주 선교사, 데이비드 게리슨, 생명의 말씀사, 1994.
2. 21세기 선교 길라잡이, 강승삼, 생명의 말씀사, 1998.
3. 선교 신학의 성서적 기초, 허버트 케인, 나단출판사, 1999.
4.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 김인수, 장로회 신학 대학부, 2000.
5. 현대 선교의 도전과 전망, D. J. 헤셀 그레으브, 한국장로교출판, 1994.
6. 갈릴리 세계선교회 선교학교 강의안, 박비민, 선교훈련원, 1999.
7. 중국 단기 선교 훈련교재, 김대준, W. M. U, 2001.
8. 기독신문, 1990.

2001학년도
목회학박사 과정 안내

복음전파에 헌신하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지도자를 훈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월드미션 대학교는 세계도처의 일선 목회현장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목회학박사(D.Min)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목회자들에게 실제적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에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는 목회자 여러분을 이 과정에 초대 합니다.

문의

전화: (323) 466-4629.
팩스: (323) 466-7840
웹사이트: www.wmu.edu
E-mail:wmumain@aol.com

1. **입학자격**

   Master of Divinity Degree나 동등한 학위를 가진 목회경력 3년 이상 된 목회자

2. **이수기간**

   2년의 Course Work과 1년의 논문작성, 3년과정으로 되어 있음.

3. **졸업학점**

   총 40학점 중 32학점은 Course Work이고 8학점은 논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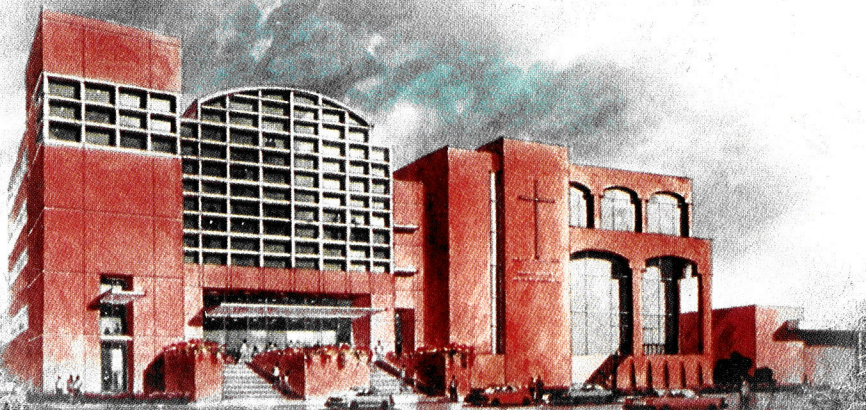
4. **학 비**

   1학점당 $200(장학금을 신청하면 1학점당 $50의 장학금을 받을수 있음.)

5. **강 의**

   1년에 두번 (봄, 가을)에 집중강의를 한다.

6. **강 사**

   미 주류 신학교의 저명한 교수들과 한인 신학계의 명성있는 교수들이 강의함.

World Mission University
424 S. Western Ave., L.A., CA 90004

1. 모집학위 및 모집학과

학위과정	학과/전공	졸업이수학점	연한	지원자격
B.A	성경신학과	126	4	고졸
M.A	신학과	64	2	대졸
M.Div	목회학과	96	3	대졸
D.Min	목회학과	40	3	M.Div졸업 목회 +3년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15	1학기	고졸
	원장자격증	18		

2. 신입생 입학요강

(1) 지원자격: 중생의 체험이 확실하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선교, 목회또는 기타 세계복음사역에 불타는 소명감이 있는 자 (유아교육과:세례교인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자)
(2) 원서마감: 2001년 8월 17일 (금) 오후 7시까지
(3) 구비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추천서 3통 (소정양식) 3) 사진 2매 4) 최종졸업증명서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6) 개인신앙간증서
(4) 전형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 (어학시험 및 성경입학시험:성경시험지침, 예제가 준비되어 있음) (단, 유아교육과는 서류심사와 면접)
(5) 시험일자: 2001년 8월 20일(월)–21(화) 오후 3시– 6시
(6) 장　　소: 필기시험:본교 A강의실, 면접:본교사무실
(7) 원서교부: 본교사무실(동양선교교회 옆 제2교육관)
(8) 신입생 학과등록: 2001년 8월 22일(월) – 23일(화)
(9) 개강부흥회: 2001년 8월 27일 (월) – 28일 (화)
(10) 개강일자: 2001년 8월 27일(월) (개강주간은 부흥 사경회로 모임)
(11) 신입생 환영 및 교수소개: 2001년 8월 30일(목)

교수 및 강사진

임동선, John McKenna, 안용식, 김진광, 임성진, 남종성, 신선묵 강준민, 김영배, 김용창, 김성원, 김종경, 김옥자, 김건태, 목만수, 박경순, 변명혜, 석태운, 안성희, 이영기, 이정근, 이효숙, 에스더 유, 이상훈, 이윤주, 이기홍, 이준재, 우상범, 오기열, 조종남, 정장복, 정석규, 조경현, 조석환, 정지연, 최선호, 편요한, 한승수, 황의정, David J. Agron, Daniel Shaw, Dean Gilliland, Earl Grant, Charles Lane Scott, Van Angen, Paul Hertig

본교 장학금 제도

1)총장장학금 2)성적장학금 3)주은장학금 4)선교장학금 5)근로장학금 6)지정장학금 7)대여장학금 8)승용장학금 9)성환장학금 등이 있으며 또한 동양선교교회의 각 선교회 장학금 등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M.Div학과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선교사로 헌신하는 학생들에게는 우선적인 장학금 혜택을 수여합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본교 사무처, 전화 또는 팩스로 연락주시면 입학원서를 우송해 드립니다.사무실 시간은 매주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문의 및 연락처

월드미션신학교,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424 N. Wester Ave., L.A., CA 90004
E-Mail:wmumain@aol.com / Website:www.wmu.edu

World Missio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월드미션대학교 및 신학 대학원)

총장 : 임동선 박사, Ph.D., D.Min • 부총장 : Dr. John McKenna, Ph.D